DAILY

#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4—985 1982년 11월19일(금) & 2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November 19 & 2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NOV 1 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6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 김득구 끝내 숨져

## 어머니 최후의순간 지켜보아

## 구명호흡기 제거직전 콩팥희사

(라스베가스=한국일보 취재반)불운의 복서 김득구선수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17일 하오6시 네바다주 판사의 사망판결이 있은후, 병원당국은 김선수어머니 양선녀씨의 허락을 받아 생명보조기를 제거하고, 김선수의 시신을 시체실에 안치했다. 보조기를 제거하기 직전 양씨는 김선수의 신장을 제거, 다른 신장병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김선수의 장례식은 일단 라스베가스한인회 주최로 19일 현지에서 치른후, 서울로운구(運柩)되어 한국권투위원회(KBC)장으로 치러진다.

지난 13일밤 이곳 시저스·팔레스호텔에서 벌어진 WBA라이트급 타이틀매치의 14라운드에서 챔피온 맨시니의 강타에 쓰러진후, 두뇌기능을 상실한 김선수는 2시간에 걸친 수술후에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면서 사망상태로 지내왔다.

16일밤 어머니 양선녀여사와 큰형 근영씨가 현지에 도착한후, LA에서 달려온 한의사 4명등이 마지막으로 침술치료를 시도했으나 끝내 회복못하고 절명했다.

침술치료를 시도한 사우스·베일러대학의 이창빈박사는 "아무반응도 없었다"면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김선수는 "사망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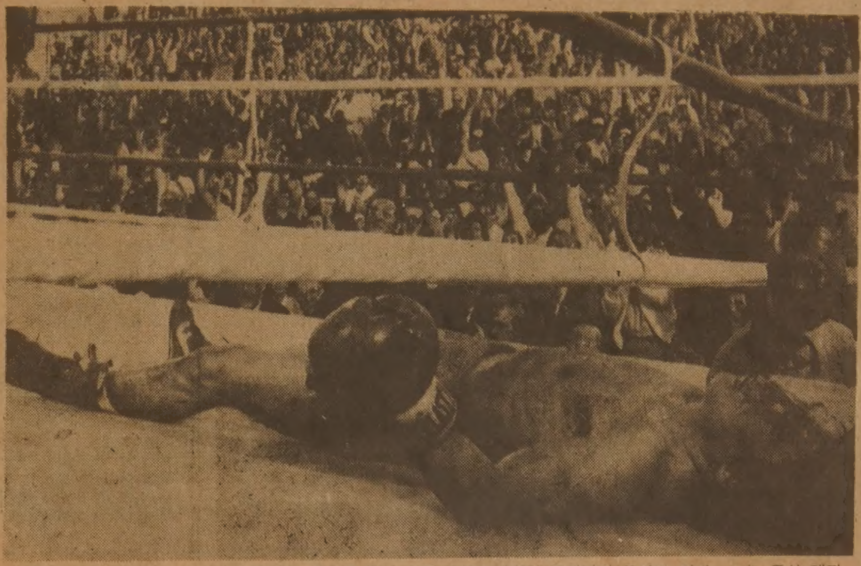
이박사를 비롯한 한의사 4명은 16일밤 1차 진단후 아침 계속 침술치료를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침술치료가 효과를 못거두자, 병원당국은 수술및 그동안의 경과를 네바다주법에 의거, 법원에 제출하고 사망판결을 받았다.

어머니 양선녀씨는 사망판결후 "내아들은 갔다. 아들의 콩팥을 살릴수 있는 신체부분은 모두 다른 환자를 위해 쓸 수 있다"면서 조직제거 수술을 허락했다.

김선수의 유가족은 이번 대전의 개런티 2만달러외에 WBA로 부터 사망보상금으로 5천달러를 탈 수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김선수가 4개월전 생명보험에 들어 유가족이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3,7,12면에)



◆링에 누운 김선수— 맨시니의 마지막 펀치를 맞고 누운 김득구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즉시 데저트·스프링병원에 옮겨져 2시간후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혼수상태속에 생명보조기로 호흡만 유지하다가 18일 오후 모친 양선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 실종 F-16전투기 추락 확인

(서울18일=연합)지난15일 훈련비행중 실종된 미공군 F-16전투기가 18일 대전근교 상공에서 추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한미군대변인이 18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비행기의 조종사 데오도르 T. 하두벨대위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당국은 추락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팀을 현지로 급파했다. 추락당시 F-16전투기는 대전근교에서 저공으로 무기공급, 훈련을 하고 있었다.

## 소련 안드로포프 극비리 평양방문

(서울13일=외신)서울의 권위있는 외교관계 소식통이 「미확인정보」로 전한바에 의하면, 이번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안드로포프는 지난 봄 북한을 극비방문했다.

동소식통은 안드로포프의 평양방문시기는 중공의 등소평 부주석(현 당고문위 주임)의 극비평양방문(4월)보다 이전이라고 밝혔다.

## 에트닉 비밀 문서

## RCMP, 이민·보안사건에 이용

(오타와)연방경찰(RCMP)은 보안, 시민권및 이민관계 업무에 에트닉그룹에 관한 연방정부의 비밀문서를 이용해 왔다고 17일 로버트·캐플란 연방검찰총장이 밝혔다.

연방정부가 에트닉 비밀문서를 갖고 있음은 지난주 의회에서 폭로되어 에트닉그룹들에게 관심을 끌어 왔다.

보수당의 페린·비티의원은 이날 에트닉중 누구누구가 비밀기록에 올랐는지를 밝혀서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입었을 경우, 그 개인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캐플란총장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캐플란총장은 어떤 종류의 사건에도 얼마나 자주 비밀기록이 이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캐플란총장은 또한 비밀문서에는 111개 에트닉그룹이 포함돼 있으며, 모두 52개의 사본이 연방정부 각 고위부서에 배부됐다고 말했다.

짐·플레밍복합문화성 장관은 1960년 존·디펜베이커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처음 작성한 이 비밀기록이 1974년 자유당 정부에 의해 개정됐음을 시인했다.

캐플란총장은 비밀기록의 내용이 두번씩 재확인됐으므로 정확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RCMP의 사본은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 한인신용조합 | | | |
|---|---|---|---|
| 기 간 | 신용조합 | 오푸기정기예금 | 시중은행 |
| 30일 | 10.5% | | 9.5% |
| 90일 | 11% | | 10% |
| 180일 | 11% | 10.75% | 10% |
| 365일 | 11% | 10.75% | 1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란퐁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金得九사건」충격의 회오리는 크다

◇…… 「권투경기 이대로 좋은가」—미국의 주요 일간지및 TV방송은 김득구와 맨시니의 대전이 권투계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있다. LA타임스와 헤랄드익재미너는 16일 이례적으로 김득구의 혼수상태를 스포츠면 톱뉴스로 다루고 『코리아의 김득구와 같은 비극이 링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

## "이제는 무슨措置 취할때" "영원히 不法化"강경론도

### 옛날 희랍의 한사람 죽을때까지 競技방불

### "殺人권투 이대로 좋은가"

(LA지사)

CBS-TV는 오는 20일(시간미정) 김득구 특별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으며 ABC-TV도 16일 아침 「굳모닝 아메리카」에서 김득구—맨시니경기를 문제점으로 등장시켰다.

미국의 매스컴들은 김득구가 맨시니의 펀치를 맞은후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LA타임스는 『현대 권투가 마치 옛날 희랍에서 열린 pankration(두사람이 나와 한 사람이 죽을때까지 싸우는 경기)을 방불케 한다』며 게임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라스베가스의 CBS-TV(KLAS)는 김득구사건을 계기로 『라스베가스에서 권투경기를 계속해야 할것인가, 중단해야 할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묻는 여론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하고있으며 현지의 NBC-TV는 김득구가 맨시니에게 얻어맞는 장면만을 특별편집 방영, 『사람이 이렇게 얻어맞고있는데 아무도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것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헤랄드익재미너지는 16일자에 사설까지 취급 『지난주(김득구—맨시니경기) 미국인들은 스릴있는 권투경기를 관람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권투경기를 영원히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3백37명의 복서가 링위에서 죽어간 놀라운 통계를 보도(링레코드북인용), 이밖에 귀머거리, 실명자, 반신불수까지 된 선수들을 합치면 권투경기로 인한 희생자는 수를 헤아릴수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득구를 KO시킨 맨시니 자신도 이번 경기가 끝난후 『권투선수가 매 경기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다. 1천만달러를 줘야 경기에 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김득구—맨시니경기를 주최한 프로모터 봅·아럼은 김득구사건으로 자신이 받은 쇼크가 커 당분간 권투경기를 주최하지않을 방침이라면서 더구나 김득구—맨시니 경기전날 자신이 관계한 알렉시스·아게요—아론프라이어게임에서도 아게요가 스물다섯번이나 연타당해 죽을뻔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매스컴이 권투경기를 이같이 비판하게 된것은 최근 자니·오웬이 루프·핀토에게 강타당한후 죽은사건(1980)과 슈가레이·레너드가 시력을 잃을가봐 은퇴한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메비무어와 킷파레트가 링에서 죽은 사건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김득구사건을 계기로 권투계 일부에서는 headgear(연습때 머리에 쓰는 헬멧 비슷한 것)를 쓰고 경기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캘리포녀체육컴미셔너인 에일린·이튼(전 권투프로모터)같은 사람은 『그것은 관중은 한명도 없이 선수끼리만 하는 경기가 될것』이라면서 심판이 신념을 가지고 경기상황을 판단,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튼은 1963년 3월 다저스스태디엄에서 데이비무어—슈거라모스경기를 주선, 무어가 링에서 목숨을 잃었었다). 이튼은 프로모터들이 실력이 낮은 선수들을 무리하게 챔피언에게 도전시키는것도 큰 문제라면서 선수들의 글로브(장갑)를 크게 하면 괜찮을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도 살인을 막을수있는 방법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실베스터·스탤론(영화배우)이 만들어낸 위대한 「Rocky」는 영화에서만 가능한 권투선수이며 실세계에서 그와같이 얻어맞는다면 재기불가능의 불구자가 될것이라는것이 복서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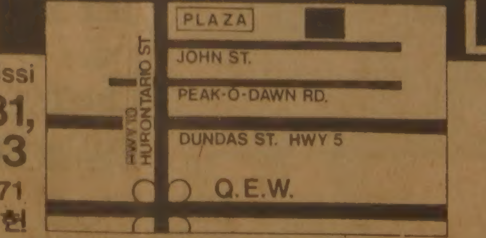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아동복 숙녀복
Mirage Boutque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할인판매!
□드레스 종류
□선물용 부라우스
□물세무 투피스(size 6,8,10)
□각종 자켙(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겨울용 오바 코트
X-MAS 선물용 상품권 판매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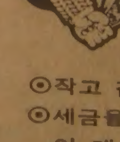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822 The Queensway
(Queensway x Islington)

작은 비즈네스를 위해 크고 비싼 계산기가 필요없읍니다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작고 값이 싼 파나소닉 제품
⊙세금을 따로 적을 필요없이 계산됨.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
안 수 일 252-7377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 중공, 한국과의 무역금지

## 홍콩·일본경유 불허

(도꾜=외신)중공무역당국은 10월 중순부터 11월5일까지 중공에서 열린 광주(廣州)교역회에서 "일본경유로 한국에 우리(중공)제품을 파는 것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상사에게 통고했음이 지난 13일 전해졌다.

중공과 한국간의 간접무역은 홍콩의 상사등을 거쳐 작년까지 순조롭게 행해져 오다가 중공측이 금년봄부터 홍콩루트의 수출입을 중지시켰으며, 이번에는 일본경유 무역마저 막아버린 것이다.

이로서 한·중공무역은 전면적으로 중지된 셈인데, 이같은 중공측의 강경자세는 최근 두드러진 중공·북한간의 더한층 긴밀화된 정치정세 변화가 경제면으로 파급된 것으로 관측통은 보고 있다.

### 중공은 석탄, 한국은 화확비료등 수출
### 한·중공무역 80년엔 $2천만

한국과 중공간 무역은 이제까지 표면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홍콩이나 일본을 경유한 서류상의 재수출 형식으로 작년까지는 공공연히 실시되어 왔다.

그 일부는 80년도의 한국무역통계에도 나타나 있어, 중공은 한국에 석탄 약 23만5천톤등 약 1천880만달러어치를, 한국은 중공으로 화학비료 4천톤, 화학섬유, 가정전기부속품등 약 270만달러 수출의 무역실적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무연탄에서 중공은 한국의 최대수입처로 되어왔다. 81년도에도 홍콩경유, 한국에 대한 중공의 수출은 전년의 약 2.5배라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82년도 1월경부터 중공은 한국산 TV부품의 수입중지등의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외화 할당문제 때문으로 관측되었으나, 등소평등 중공요인들의 북한방문등 북한-중공 접근에 발을 맞추는듯 중공당국은 금년 5월경부터 홍콩루트의 무역을 거의 전면중지했다.

일본루트는 그 후에도 미미하게나마 계속되었으나 지난 6월 계약하에 일본의 모지(門司)항구를 중계지로 한 일본화물선이 중공에 가서 석탄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직행, 짐을 부리고, 중공항구에 갔더니, 계약위반이라 하여 중공측은 2만달러의 벌금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이번 광주교역회에서 중공의 각수출공사가 구체적 상거래 협상중 중공제품의 대 한국 재수출 중지를 통고한 것은, 한·중공무역에 대한 중공측 방침변경의 공식인정과 아울러 일본루트에 대한 엄격한 태도의 의사표시로 풀이된다.

이같은 중공의 방침변경은 금년봄 중공요인의 북한방문에 이은 김일성의 중공방문등 한층 긴밀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거래상대인 일본의 오오데(大手)상사의 일치된 견해이다. 또 작년 소련이 중공에게 한국과의 무역을 비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공 무역이 거의 전면정지 상태가 된데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측의 중공에 대한 「압력」탓으로 단정, 최근 노재원 외무차관이 국회에서 "한국의 대중공 관계개선 노력은 북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중공에 비난의 화살을 향하는 것을 신중히 피한 것은 6년후의 서울올림픽 개최등을 앞두고, 대중공 무역 계속이 정치적으로도 의의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JCI세계대회참석차 서울에 온 미스유니버스2위 한국계 미스괌

『5살때 미국으로 떠난후 처음으로 어머니 나라를 찾게돼 무척 기뻐요』—올해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된 미스·유니버스선발대회에 한국계 미인으로 2위에 입상한 미스·괌 패티·정·커커스양(18)<사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국제청년회의소(JCI) 세계대회에 괌JC 일원으로 참가중인 커커스양은 길게 늘어뜨린 갈색머리에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면서 자신은 늘 한국인의 피가 섞여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고.

『제가 현재 살고있는 괌에도 약5천명의 한국인들이 살고있어요. 한국의 명절때면 모두 한복을 입고 명절분위기를 한껏 즐기지요. 한인교회도 많구요. 모두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고 부지런해서 괌 어디에서나 한국이라면 환영을 받는답니다』

무용을 좋아하고 롤러스케이트·태권도·합기도·보디빌딩등도 즐기며 한국어와 영어외에 일어·스페인어도 할줄 안다는 팔방미인.

국제미인대회에서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줄 아는 스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외모로는 결코 세계 어느나라 미인들보다 뒤지지 않는 한국미인들이 영어회화를 못해 세계대회에 입상하지 못하는것 같다고 안타까와 한다.

가족으로는 주한미대사관에서 근무하다 어머니와 결혼, 현재 워싱턴의 국방성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늘 자녀들에게 한글 가르치기를 잊지 않는 자상한 어머니, 남동생 둘, 외할머니등 6명.

**처음 엄마나라 찾아 기쁜마음 가득**
**우리말 유창… "한국에 살고싶어요"**

◆미스·괌 패티·정·커커스양

## 교민동정

◆반병섭(목사·한인(연합)교회 담임)=뱅쿠버한인연합교회를 사임, 토론토로 이주해 지난7일 위임예배를 거쳐 정식 부임했다.

◆윤병수(K & R Sea Food경영)=지난봄 Queensway Royal York에 생선업을 차렸던 윤씨는 연말연시를 맞아 파티를 위한 회접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3일전에 예약하면 야채도 곁들여 보기 좋은 파티용 접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윤씨의 상점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하오6시까지(목·금은 하오8시까지)열며, 김장용 새우, 동태, 오징어를 비롯, 가재, 조갯살, 연어, 광어등 각종생선, 어물 일체를 취급한다. 전화번호는 259-1585.

## "여성임이 제일 큰 장애"
### 여성중역상대 여론조사 결과

여성으로서 직업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장애는 "여성이기 때문"이었다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밝혔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경영대학원과 콘·페리회사가 공동으로 미국의 롬클라스 여성중역진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연령은 46세, 평균연봉은 $92,159였다.

여성중역진중 52%가 싱글이었고 61%가 자녀가 없었으며 이혼한 사람중 55%가 직업이 파탄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페리씨는 롬클라스 중역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커다란 개인적, 사회적 희생과 댓가를 치렀음이 이 조사결과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그러나 응답자의 80%가 다시 사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직업에 종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 노인과 젊은이와의 대화
### 20일 노년회주최 강연회

노년회(회장 조영호)가 주최하는 노인과 젊은이와의 대화시간이 20일 하오1시 교육회관(252 Bloor St. 212호실)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희민 한인장로교회목사의 주제강연과 노인측에서 이처관 노년회이사의 교민사회의 노소문제, 오윤석이사의 애국심과 캐나다 사회의 적응에 관해 발표한다.

학생측에서는 정태교대학생회(KUSA)회장이 가정내의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 윤주석대학동창회장이 노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밍크 |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밍크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소론>

## 네 자신이 되라 ②

박희민(본지 논설의원)

◆박희민 논설위원

자기자신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자기혐오와 학대는 가장 무서운 인생의 적이다.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뜻있고 창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이 파괴되고 만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태도의 기초가 된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을 창안해 가야 한다. 한 시인도 「다르게 되어라. 네 자신의 삶의 패턴을 가지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의 별을 좇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Self-Confidence)은 성공에 이르는 비결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으며, 나는 이곳에서 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는 깨달음처럼 귀한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나그네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민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지나치게 손님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점이다. 우리는 이땅에 당당히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인이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나는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삶을 전개해 갈 수 없게 된다. 나는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처럼 무서운 병이 없다. 그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 사로 잡히는 일처럼 불행이 없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네 자신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리우게 하지 말라. 자신 속에 감추인 작은 가능성의 불씨라도 그것이 큰 성취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부채질하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모든 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고, 창의적 자신을 개발해 가라.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라.

문호 쉐익스피어도 「너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라. 낮이 가면 밤이 오듯 너는 다른 사람에 거짓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만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를 개혁해 가기를 배우라. 한 개종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를 개혁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

◆지난11일 토론토한인Y회관서 열린 와이즈맨클럽 "친교의 밤"—한인클럽, 노스욕, 키치너, 나이아가라등 클럽회원들. 50여명이 마지막 석별의 노래로 이밤의 행사를 마무리 짓고 있다.


# 사은대매출

## 인사말씀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식품 동부를 인수받은지 여언 1년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교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결과, 저희 식품점은 날로 발전을 거듭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닥아오는 년말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봉사코자 한국에서 많은 상품을 구입해서 봉사가격으로 판매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 한국에서…>
□신간서적(각종 소설류, 베스트셀러) 많이 들여 왔읍니다. * 대본료(새책) 1주일 2불
□각종 카셀 TAPE를 대량 구비했읍니다. ~~$11.00~~ → $6.50
□한국인형(크리스마스 선물용)스페샬
□밍크담요 ~~$95~~ → $55

# 서울식품 동부

중공산 조기(중간치) SPECIAL 판매중입니다.
(B)291—8317 367 PITFIELD RD. 대표 : 이 상수

# "내발로 링 안내려오겠다"

## 幸運의 女神은 끝내 微笑를 보내지않고…

## 金선수「不運의 下午2時45分」

### 호텔 벽에 붉은 글씨로 "死生 결단"
### 좋은 찬스 맞았다하면 공 울리고
### 觀衆들도 저돌적 화이팅에 놀라움
### "이번 라운드에 끝장"뛰쳐 나가더니…

『이번 게임에서 제서 내발로 스스로 링에서 걸어 내려가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장담한 김득구선수는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말한대로 스스로 걸어서 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기력을 모아 싸웠으나 영광의 신은 김선수에게 미소를 보내지않았다.

그는 그가 어떻게 불운의 게임을 마쳤는가를 의식하지 못한채 들것에 실려 링에서 내려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운명의 대전을 앞두고 김선수는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주위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했다.

라스베가스에 와서 시저스·팰리스호텔 1288호실에 여장을 푼후 「사생결단」이란 붉은 글씨를 써붙이고 맹훈련에 들어갔다.

죽기를 결심하고 싸우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고국을 떠나올때도 『링에서 죽으면 죽었지…』라면서 비장한 결의를 나타냈다는것.

경기당일인 13일 한국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중에서 『어떻게해서든지 맨시니를 넉아웃 시켜야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김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붙여놓은 「사생결단」이라는 글자를 이마에 매고 게임에 임하려고 했으나 매니저 김현치씨로부터 『너의 결의가 그만하면 됐으니 이마에 맬 필요는 없다』라는 권유를 듣고서 그대로 링으로 향했다.

김선수는 경기전날밤 호텔에서 우연히 롤렉스시계를 주웠다.

주위에서는 『고급시계를 발견했으니 운이 좋겠다』면서 기뻐했다.

시저스·팰리스호텔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 모인 약6천5백명의 팬들은 1회전부터 돌격자세와 스피디한 화이팅을 보인 한국의 복서에게 놀라움을 감추지못했다.

지금껏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우리선수의 놀라운 화이팅에 1백여명의 라스베가스교포관객은 『이번에는 문제없다』, 『싸워라! 김선수』면서 열광하기 시작했다.

1회전을 마치고 코너에 돌아온 김선수는 세컨드에 『싸워볼만한 상대다』라고 말했다.

김득구는 초반에 결판을 내려고 3회전에도 맹공격을 퍼부었으나 공이울려 실패했는데 좋은 찬스인 7회전에서도 상대선수에게 정확히 펀치를 때려 맨시니가 다리를 끌정도까지 몰아쳤으나 이때도 공이울려 늦어버렸다.

게임이 7회전을 넘기고 길어지자 양측진영은 초조해지기 시작, 체력유지에 전신경을 쏟게되었다.

중반전이후 김득구는 링에서 상대선수에게 계속중얼거리고하여 주심 리처드·그린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했다.

김득구의 치명타는 13회전에서 일어났다.

시종 수세에 몰려 제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맨시니는 처음으로 기력을다해 약 10여차례 펀치를 올려 크게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이때 김선수는 세컨드로부터 『30초 남았다』라는 소리에 반격을 개시해 기력이 남아있음을 과시.

코너에 돌아온 김선수에게 매니저인 김현치씨가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자 『관장님, 염려마십시오』면서 『요번 라운드에 끝장냅니다』라고 말했다.

14회전 벨이 울리자 김선수는 잽싸게 일어나 링중앙으로 뛰어나가 공격자세를 취하며 펀치를 올렸으나 이때 맨시니오른손 기습으로 턱뼈를 정면으로 맞았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이때 또다시 맨시니의 오른손 펀치가 들어왔으나 첫번 펀치로 맞은 김선수가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빗나갔다.

그러나 맨시니가 다시 오른손을 뻗는 것과 김선수가 머리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명중타를 또다시 맞아 곧바로 뒤로 다운되었다.

주심은 『하나, 둘, 셋, 넷…』까지 카운트하고서는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때 간신히 로프에 기대어 일어나려던 김득구는 그대로 캔버스에 넘어졌다.

맨시니가 두손을 높이쳐들고 기쁨에 넘쳐 환호를 받고있을때 김선수는 캔버스에서 일어날줄을 몰랐다. 이때가 하오2시45분.

김선수의 세컨드가 링에 올라 김선수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면서 뺨을 두번 두드렸으나 그는 계속 눈을 뜰줄 몰랐다.

다음순간 세컨드는 김선수의 얼굴표정에서 약간 웃는듯한 표정을 느꼈으나 자세히 보고서는 그것이 웃음이 아님을 알았다.

『처음에는 멋적어서 짓는 표정인줄 알았는데 코고는 소리를 듣고서 뇌출혈이 아닌가 느꼈다』고 김선수의 세컨드는 나중에 밝혔다.

링사이드 주치의 도널드·로메오박사가 곧 링에 올라 김선수의 안구검사등을 하고난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할것을 명령, 대기중인 앰블런스로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데저트·스프링스 호스피탈로 향했다.

이때가 하오3시였다.

병원에서 X-Ray검진만을 마친후 매니저 김현치씨의 허락을 얻어 하오4시30분 로나함머그린신경외과 박사의 집도로 수술에 들어갔다.

약2시간30분동안 수술을 마친후 하오8시 병원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수가 생명이 위독함을 공식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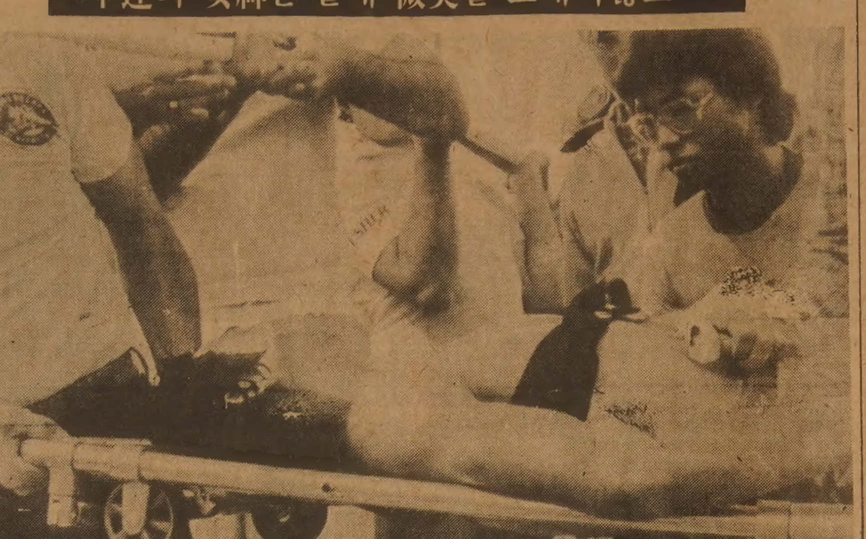
이 보도는 3대전국네트워크방송으로 전국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김선수를 병실에 남겨놓고 호텔에 돌아온 매니저일행은 김선수방이 도난당했음을 발견했으며 김선수가 우연히 발견했던 롤렉스시계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없어졌다.

호텔측은 김선수방의 도난은 경기중에 발생했을것이라고 추정했다. 〈라스베가스-변홍진특파원〉

▲치고 받는 난타전—김득구는 경기초반부터 눈부신 대시를 보여 경기초반은 득점면에서 우세를 보였다. 맨시니도 놀란 김득구의 분투는 마의 14회전 다운으로 생명까지 지장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 〈라스베가스 —박세훈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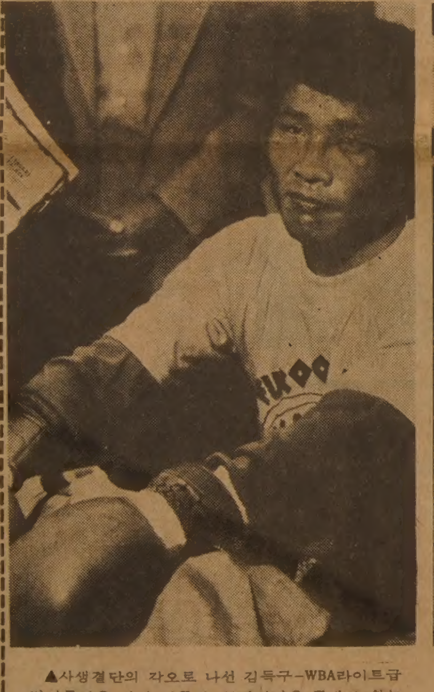
## 「맨시니」간담도 서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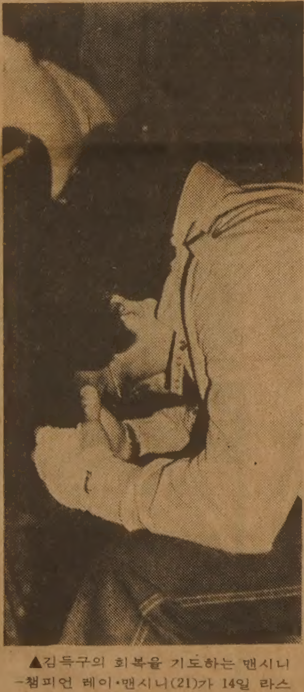
▲회생부른 지나친 투지—13일 WBA라이트급 세계타이틀을 걸고 챔피언 레이·맨시니와 격돌한 김득구선수가 경기종료 직후 긴급히 들것에 실린채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는 잇단 한국권투의 부진을 이번에 설욕하려는듯 경기초반부터 격렬한 파이팅을 보였으나 마의 14회, 맨시니의 강타를 맞은후 3일째 뇌출혈로 인한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라스베가스 〉

## 「죽음」意味하는 不吉한 말 많이…

### 호텔서 롤렉스時計주워 "吉兆"인줄알았는데 結局엔 盜難 당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선 김득구—WBA라이트급 타이틀전을 갖기 이틀전, 트레이닝을 끝내고 쉬는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결의를 굳히고 있다.



▲김득구의 회복을 기도하는 맨시니—챔피언 레이·맨시니(21)가 14일 라스베가스의 토로피카나호텔에서 특별미사중 기도하고 있다.

▲결정타를 맞는 순간—14회전에 들어 김득구선수가 맨시니의 오른손결정타를 머리에 맞고있다. 곧 KO된 김선수는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 〈자유당 전당대회 참관기〉②

이태은 (본보 오타와지국장 : 자유당대의원)

왜 이렇게 당의장 선출이 요란하며 당의장은 무엇인가? 위의 자유당 조직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풀이해서 당의장은 리더를 탄생시키는 산모역할을 한다.

의장의 주요활동은 다음 선거를 겨냥, 당의 승리를 위해 「리더」를 발굴하고 선거자금 모금, 조직등이 그의 임무이다.

즉 자유당의 계속집권이냐? 아니면 정권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가 리더뿐 아니라 당의장에게 달려있다.

근 2천명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 개회즉시 B.C. 출신 엘버트·풀 대의원이(변호사) 긴급발의로 제출한 5개항의 「수상 트루도 리더쉽 재검토」 안건은 24명의 찬성을 제외한 전 대의원이 반대했다.

당의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이나 경제·외교·국방·사회로 구분되는 워크숍에 참가, 해당 전장관을 출석시켜 각부처의 계획을 설명받고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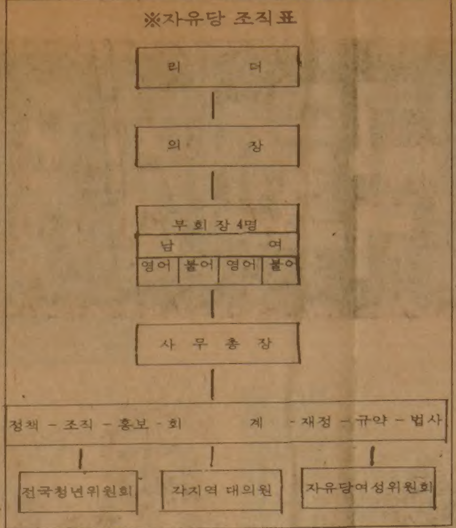
장관의 개인면담도 가능, 필자는 복합문화성장관이나 이민고용장관 또는 외무교역장관, 체육장관등과 만날수 있었다.

짐·플레밍 복합문화성장관은 특히 한인교민사회에 관심이 많다면서 에트니그룹의 발전을 위해 언론육성, 교육지원, 이민정착 지원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중에는 314개항목의 방대한 정책(Resolutions)을 놓고 워크숍을 벌였다. 대체로 당의 긴급결정사항(예: 수상리더쉽 신임도투표), 경제개혁 사회정책, 복합문화, 고용확대, 이민정책, 에너지및 환경, 식품, 어업, 임야, 교육, 퇴직금및 연금, 여권신장, 인디언 원주민 권리와 캐나다인 권리, 국제정책, 국내정책, 기타 당의 정책을 토론과 함께 개정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했다.

대략 8개소로 나누어 토의하는데 어느 곳이나 영불동시통역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정치를 하려면 이중언어(영·불)능력이 필수적이다. 영어 한가지로는 정치문제아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대의원들은 법조문에 조예가 있어야 발언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상부터 정계고위층이 거의 변호사 출신들이다.

당의장 선거가 있는 회기 마지막 전날밤에는 전 각료, 국회의원, 대의원, 각국대사들을 Hull(쾌벡주)에 있는 콘벤션센타에 4,000여명을 초치, 당위력을 과시했다. 트루도수상 연설에 이어 3번에 걸쳐 「트루도 리더쉽」 활동사항을 대형스크린에다 음향을 곁들여 보여준다. 작년 트루도방한 씬도 잠깐 소개됐다. 트루도는 이 연설에서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대로 우리의 헌법을 우리 당이 만들었다고 열변을 토한후 경제회복 5개 플랜을 제시, 모든 대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와 함께 「트루도-트루도」 구호를 외쳐대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꼭 그 계획대로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자유당진로의 열쇠가 될것 같다.




## 당의장은 선거전략의 총수
## 댄스파티에서도 의장선출운동

끝이어 대의원을 위한 댄스파티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트루도수상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모두가 밤 12시가 넘도록 피곤한줄 모르고 추어댔다. 여기서도 내일의 당회장 선거운동은 여전히 계속된다. 대의원 대부분이 자기 지지후보들의 「뺏지」를 가슴에 달기 때문에 의장의 윤곽을 알수 있다. 트루도처럼 뺏지 여러개를 한꺼번에 단 사람은 입장이 거북한 사람, 아무 뺏지도 없는 사람은 미결정자이다. 그러나 뺏지를 여러개 단 대의원보다는 아무 뺏지도 달지않은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

지역회장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도 특정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이나 지시는 절대로 하지 않으며 그것은 당내 금기중의 하나이다.

선거전에 있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제한시간 5분)에 따라 대세는 완전히 결정되는데 밤새껏 지새운 파티, 티쉽손정치에 따라 뺏지도 없던 대의원이 갑자기 뺏지를 달고 피켓을 들기도 한다.

당의장 후보에는 아이오나(74-79년 전직 체육부장관, 전 B.C.Skeena출신 국회의원, 현 개인방송국 운영) 여사와 놈·매크로드(토론토출신, 현회장 당경력 22년)씨와의 대결.

미모와 지략을 겸비했다는 아이오나는 배우나 탈렌트처럼 첫날부터 원색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두번이상씩 바꿔가면서 멋쟁이임을 과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흥분된 억양과 넘치는 제스츄어로 당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약속, 특별한 내용도 없으나 스피치도중 벌써 과반수 이상이 「피켓」을 흔들어대고 후보이름이 새겨진 에드벌룬이 불룸천장을 수놓는다.

「놈」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슷했지만 대세는 선거하지 않고도 표숫자가 눈으로 보고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싱거운 것같다.

◆당의장에 선출된 아이오나여사

---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 第5의 사나이

<112>

金聖鍾 작

## 29분의 1 ⑰

## "형사가 옥자를 찾아자면 큰일이요"

그녀는 긴장하고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필…적언가요?』

『필보고 적던데….』

경비원은 일부러 뜸을 들이는것 같았다. 문자는 참고 기다렸다. 재촉해서 묻는다는 것은 좋지않다. 이윽고 경비원은 생각난듯말했다.

『아, 이제 생각납니다. 저기, 아드님한테 온 편지를 뒤적이더니 수첩에다 뭔가를 적었읍니다.』

『아니, 편지를 뜯어보았나요?』

『아니요. 편지는 뜯어보지 않았읍니다. 다른 편지들하고 함께 이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아드님한테 온 편지가 하필 맨 위에 있었거든요. 편지를 이렇게 뒤집어 보더니 뭔가를 적었읍니다. 필 적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적었읍니다. 편지를 보고 적은게 아니라 다른 걸 적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이미 하나의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정부가 오빠한테서 막 전화가 왔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가정부를 돌려가게 하고 오빠한테 즉시 전화를 걸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듯 오빠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큰일났어요! 형사가왔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죽여 숨가쁘게 말했다.

『뭐라고?! 정말이야?!』

숨죽인, 그러나 경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을 정확히 대면서 모르느냐고 물었어요.』

『이럴수가…』

『어떡하죠?』

그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바람에 말을 잘 할수가 없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

『지금 그걸 따질 때예요?』

朴男 그림

『하도 기가막혀서 그러는거야. 아무라 그런 걸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것뿐이 아니예요. 몽타지를 두장 가지고 다니는데 한장은 모세거고 다른 하나는 오빠를 닮은거였어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오기전에 철민이한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철민이가 삼촌이라고 그랬나?』

『글쎄, 그애가 모른다고 잡아뗐대요.』

안도의 한숨이 전해져왔다.

『또 있어요.』

『또 뭐야?』

그녀는 편지건을 이야기했다. 말끝에

『형사가 틀림없이 옥자한테 찾아갈거예요. 옥자를 족치면 그애가 배겨낼것 같아요? 그애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거예요. 모세를 본 유일한 목격자 아니예요.』

『큰일 났군. 보통일이 아닌데. 어쩌지?』

목소리가 떨리는듯 하면서 잦아들고 있었다.

『이미 지금 옥자한테 갔는지도 몰라요.』

『……』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한참동안 말없이 전화통을 붙들고 서 있었다.

---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한국일보는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치과 개업

하기 장소에 새로이 치과를 개업하고 교민 여러분에게 성심껏 봉사하겠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치과의사 윤중태 올림

☎ : 925-2408

주소 : 360 Bloor St. W. #307

(1 Block W. of Spad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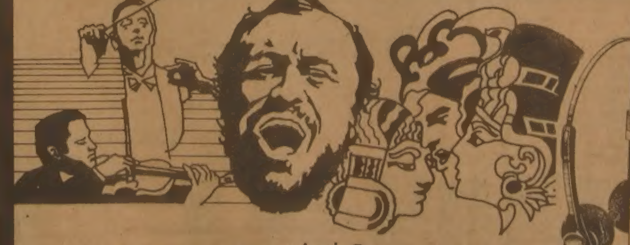
(지하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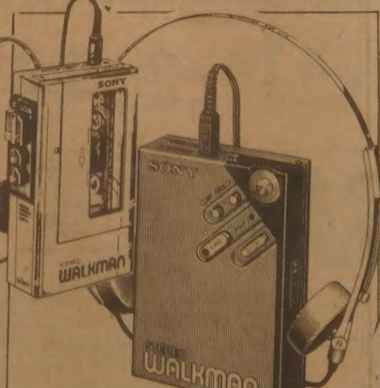
시간 : 월~금 9:00~6:00 토 9:00~3:00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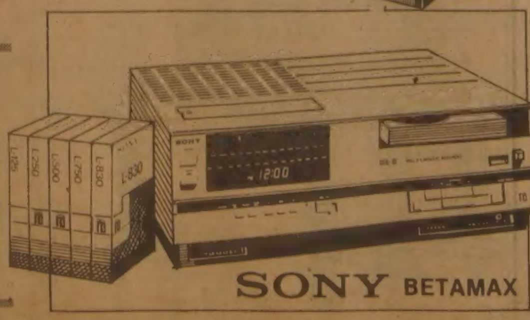



SONY 비디오 SL-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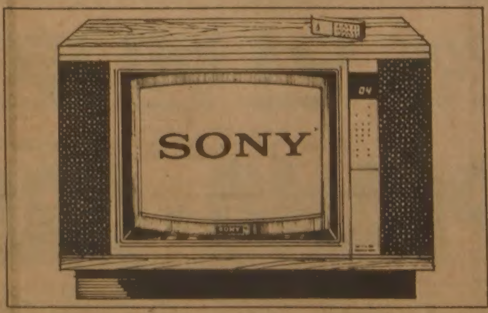
X-MAS 특별가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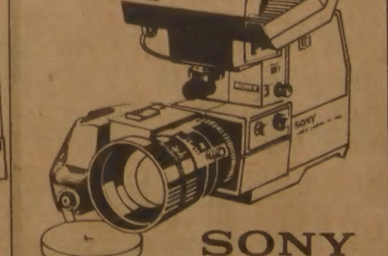
$795

금번 SONY회사에서는 닥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 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SONY BETA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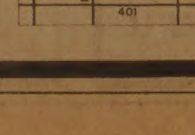


SONY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추가특별보증기간〉

82년10월15일부터 83년1월30일까지에 한하여 5년간 완전 보증합니다. (SONY TV에 한해서)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한국軍파견 月內決定 기대"

## "이·시리아軍등 對峙한 베카溪谷 駐屯을 희망"

### 살렘 레바논外相

【베이루트 16日=安炳璨 특파원】 엘리·살렘 레바논외상은 15일 유럽및 한국의 다국적평화유지군의 파견결정이 이달말까지 실현될수 있으며 이스라엘및 시리아군의 철수가 12월말까지 이루어질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했다고 레바논중도계신문인 안나하르紙가 15일 보도했다.

또한 레바논의 중앙통신은 사우디發기사에서 살렘외상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파병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했다.

레바논정부입장은 새로 파견되는 다국적평화군의 관할지역은 시리아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軍과 이스라엘및 기독민병대인 팔랑헤군이 예각으로 대치한 베카계곡의 베이루트—다마스커스하이웨이가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프랑스·이탈리아등 3개국평화군은 현재 베이루트시내에서만 소극적 경비·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평화군의 베카계곡지역임무확대는 긴급상황이 되고있다.

15일특파원은 베카로 가는 베이루트—다마스커스하이웨이를 답사했다. 베이루트에서 동쪽으로 불과 15㎞떨어진 알레이읍부터 분위기는 삼엄했다. 포장 도로는 고원지대를 지그잭으로 계속 올라간다. 알레이읍입구의 팔랑헤민병대원은 「MP(헌병)」이라고 쓴 빨간완장과 M16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검문했다.

10㎞ 더 떨어진 브토우르람마읍에는 이스라엘방위군이 전투태세를갖추고있었다. 이미 차량통행은 한산하고 중무장한 이스라엘 순찰차가 빈번히 왕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군 최종 검문소는 브토우르람마읍에서 10㎞ 더 간 소파르읍에 있다. 소파르는 해발 1천1백40m의 高地다. 음부터는 시리아군 점령지역이다.

시리아군 검문소는 베카까지 2백m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일단 시리아군지역으로 넘어간 사람은 이스라엘군이 귀로를 차단하므로 가기가 힘든다. 알레이읍으로 부터 소파르까지의 25㎞는 사실상 교전지역이다.

### 和蘭, 派兵거부

【헤이그16日=聯合】 네덜란드하원은 15일 베이루트에 주둔한 3개국 평화유지군을 확대하기위해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레바논의 요청을 거부키로한 정부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아민·제마옐 대통령의 레바논정부는 현재 미국·프랑스및 이탈리아군등 약 4천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확대하기위해 이달초 오스트리아·벨기에·영국·네덜란드·스웨덴및 한국등에 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蘇聯의 새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가 15일 크렘린궁에서 담화를나누기에앞서 조지·부시美부통령과 악수를나누고있다. 【모스크바16일UPI=聯合】

# 弔問사절과 連鎖접촉

## 안드로포프 부시·간디·카르스텐스등

【모스크바16日=聯合】 유리·안드로포프신임소련공산당서기장은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조문사절로 모스크바에 대거 몰려든 非공산권 政界要人들과 일련의 활발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그가 장래의 소련외교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임을 과시했다.

안드로포프는 15일 카를·카르스텐스서독대통령, 조지·부시美부통령 그리고 지아·울·하크파키스탄대통령, 인디라·간디印度수상, 바브라크·카르말아프가니스탄대통령등 3명의 아시아국가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구권 지도자들은 안드로포프와 일체 개별회담을 갖지않은채 귀국했다.

### 부시와 軍縮·人權문제등 논의

【모스크바UPI=聯合】 유리·안드로포프 신임소련 공산당서기장은 15일 크렘린에서 조지·부시 미부통령과 미·소 수뇌회담을 갖고 군축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토의하면서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있다고 다짐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회담후 양국 수뇌는 미·소관계의 주요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말하고 이회담에서 안드로포프 서기장은 소련이 완전한 평등과 상호내정불간섭 및 상호존중의원칙하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시부통령은 회담후 기자들에게 이회담에서 양국 수뇌는 군축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정중하며 실제적인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 F16 1臺실종

## 駐韓美空軍, 機體발견하면 申告바라

주한미공군소속 F16전투기 1대가 15일상오10시30분께 충남大田부근 상공에서 훈련비행도중 실종됐다고 16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실종된 F16기는 이날아침 주한미공군기지를 이륙, 무기수송훈련을 위한 저공비행을 하고있던중 무전통신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 전투기에는 조종사 데오도어·T·한무벨 대위 1명이 타고있었다.

주한미군당국은 이비행기가 충남지역에 추락했을것으로 보고 공중및 지상수색을 펴고있으나 16일 하오5시현재 기체를 찾지못하고 조종사의 생사도 확인되지않고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당국은 기체나 조종사가 발견될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줄것을 바라고있다.

### 교과서改正등 협의 고또오 日公使귀국

고또오·도시오(後藤利雄) 駐韓일본공사는 일본 역사교과서 歪曲문제에 대한 文部省의 시정작업을 포함한 韓日간의 현안문제 전반에 관한 정부협의차 15일하오 일시 귀국했다.

# 法人稅率 10% 上向조정

## 民正, 修正案제출

## 50億초과 非上場기업 35%로

民正黨은 16일 국회財務委 稅法심사小委에서 課標 5천만원초과 公開·非공개법인에 대해서는 32%(정부안22%) 자본금 50억원초과 非上場대기업에 대해서는 35%(정부案자본금 1백억원초과 非上場대기업25%)의 法人稅率을 적용토록한다는 修正案을 제시했다.

이날 稅法小委에서 金鍾仁위원장(民正)은 이같은 民正黨의 修正案을밝히면서『법인세율을 이처럼 上向조정하면 내년도에 약1천90억원의 稅收증가가 있을것이므로 國債발행규모를 1천90억원정도 줄일수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개정안은 課標 5천만원초과공개·非공개법인에 대해서는 22%, 자본금 1백억원초과 非上場대기업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를 적용토록하고있어 이날 民正黨이 제시한 수정안은 정부案보다 10%上向조정된 것이다.

民正黨은 그러나 課標5천만원이하 공개·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정부案과 마찬가지로 20%의 稅率을 적용할방침임을 밝혔다.

그런데 民正黨의 陳懿鍾정책위의장은 지난13일 과표5천만원초과 공개·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8%많은 30%, 자본금 50억원초과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안보다 8%많은 33%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힌바있다.

### 相續稅法 개정절충 稅法심사 13人小委

국회 財務委는 16일 하오 稅法심사13人小委(위원장金鍾仁의원·民正) 첫회의를열고 본격적인 稅法심사에 착수, 여야간 爭點이 적은 상속세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였다.

稅法小委는 오는 20일까지 상속세, 附價稅, 특별소비세, 租稅감면규제법, 소득세, 법인세법개정안등의 順으로 심사를 모두 마칠예정이다.

이날 稅法小委는 開議되자마자 民韓黨측이 『實名制실시를전제로한 稅法심의인지 먼저밝혀야한다』고 民正黨측에요구, 잠시 논란을 벌였으나 金위원장이 『實名制실시 연기를 전제로 稅法案을 심의하겠다』고 밝혀 정상심사에 들어갔다.

# 與野、잇단幹部회의

## 레바논派兵·資源法案등 對策논의

與野는 16일 각각 黨간부회의를 열고 한국군의 레바논파견여부와 資源관리법안의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民正黨은 이날 黨職者회의에서 資源관리법안의 명칭을 非常對備法案(假稱)으로바꾸고 내용을보완, 이번국회회기内에 처리한다는 방침을재확인하는 한편 레바논 派兵문제는 이번週内에 외무부에대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토록 촉구하고, 이를 토대로 黨内의견을 종합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뒤 金瑢泰대변인은 『자원관리법안의 목적과 내용은 정정당당한것이었지만 정부당국자들이 홍보를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고 이법안 처리와 관련, 吳世應정무제1장관과 羅熙弼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野黨에보내 정부 立法취지를 설명키로했다고 밝혔다.

金대변인은 이어 『레바논派兵문제에대해 黨内에 신중론과 찬성론이 엇갈리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정확한 자료를모아 黨論을결정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 金得九선수家族에 금일봉

## 全대통령, 渡美 적극배려도 지시

全斗煥대통령은 16일 프로복싱 WBA라이트급 선수권도전戰에서 치명상을입고 입원가료중인 金得九 선수가족에게 치료비에 보태 쓰도록 관계비서관을 통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金선수의 容態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金선수 가족들이 金선수간호를위해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갈수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다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金선수의 어머니 梁仙女씨(65)와 형 根龍씨(33)는 이날하오9시40분 대한항공편으로현지로떠났다.

한편 체육부는 朴盛夫사무관을 金선수가족과 동행시켜 가족의 미국방문과 金선수간호를 지원토록 했다.

## 中美 코스타리카 前대통령을 接見

全斗煥대통령은 16일상오 청와대에서 코스타리카 官民경제통상사절단을 이끌고 訪韓중인 다니엘·오두베르·퀴로스 코스타리카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 鄭壽昌商議회장, 로란도·아라야·몽헤 코스타리카 公共사업및 運輸省장관이 배석했다.

#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6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 東山土建사우디PF-16기능사원 1백74만원
- 在京釜高10회同期會 1백71만원
- (株)三一社임직원 54만원
- 정릉경로대학 39만원
- 日岐阜韓日親善協 20만엔
- 道峰區下溪洞주민 36만원
- 이용사회道峰지회 28만원
- 삼환기업사우디신우회 1천리얄
- 숙박목욕협 강동구 지회 21만원
- 三進精工 권혁구 代表外 20만원
- 구리읍의용소방대 19만원

◇金鍾喆씨

▲東山土建(株) 사우디PF—16현장기능직사원—同=1백74만9천9백29원 ▲在京釜高10回同期會 金鍾喆회장外=1백71만원 ▲(株)三一社 임직원—同=54만4천1백45원 ▲정릉경로대학학장 김성식씨외학생일동=39만5천65원 ▲日本岐阜縣多治見·笠原지구 韓日親善協會(團長永治良郞)=20명=日貨20만円 ▲道峰區 下溪洞주민—同=36만1백원(1통주민—同=4만원, 2통주민—同=2만원, 3통주민—同=5만2천원, 4통이남기씨=2만원, 5통주민—同=3만원, 6통주민—同=5만8천원, 7통주민—同=2만원, 8통왕규진씨, 고광선씨=3만5천원, 14통주민—同=5만5백원, 15통주민—同=3만4천6백원) ▲한국이용사회道峰지회(지회장 박연팔)원—同=28만6천3백50원(송천1구역=1만5천원, 송천2"=1만8천원, 삼1의2"=7천원, 삼1의3"=1만1천원, 삼1의1"=1만3천원, 삼2의1"=1만원, 삼2의2"=9천원, 수유1"=1만3천원, 수유2"=5천원, 수유3"=1만원, 수유4"=5천원, 창동1"=1만원, 창동2"=2만2천3백50원, 창동3"=1만3천원, 창동4"=1만원, 도봉1"=5천원, 도봉2"=6천원, 도봉3"=4천원, 쌍문"=3만8천원, 번동"=1만원, 월계"=2만1천원, 공릉동=1만원, 지회장 박연팔씨=1만원, 지회사무실=5천원) ▲삼환기업 사우디SM—29고속도로현장 기독교신우회—同=1천리얄 ▲大韓숙박·목욕업중앙협회 강동구지회 박세용회장외 회원—同=21만원 【천호보급소접수】 ▲三進精工(株)대표이사 권혁구씨외임직원—同=20만원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의용소방대원(대장이장국)—同=19만원 【교문리지국접수】

## 社会漫評

과 연……

## 地平線

경북경산군 영남대학교와 인접한 임당고분에서는 2개의 금동관과 새날개꼴의 관식 1점을 비롯하여 금귀고리, 팔찌, 적색장경호, 마두장식이 붙은 토기등 보기드물게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발굴단(단장鄭永和교수)은 물론 사학계를 흥분케 하고있다. ▼임당고분의 발굴이 착수된것은 도굴배들에의해 파괴된 고총들을 정리·수습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영남대학당국에 이를 허가한데서 였다. 한데막상 손을대고보니 만만치않은 중요유적으로 밝혀졌고 또 도굴분사이에는 금관이 매장된 처녀분도 있어서 갑자기 주목을받기에 이른것이다. ▼지금 일반의 관심은 이학술적인 발굴을 통해 어떤유물이 얼마나 출토됐는가에 쏠려있다. 하나 학계의 관심은 좀달라 신라것과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이부족들의 무덤이 우리고대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압독국(押督國)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실마리가 될것이라는 기대로 더욱 부풀어 있는 것이다. ▼압독은 경산군의 고지명이다. 고대 부족국가의 이름이기도한데 진한(辰韓)의 한나라였던 이곳은 압량국(押梁國)으로도 불렸다. 그러다가 신라제6대째의 지마왕(祇摩王)때 신라에 합병되어 한때 유신이이곳군주(軍主)로있었던 일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뿐, 나머지는 전해진게 별반 없다. ▼그러던차에 이번 발굴로 고분군이 4세기말에서 5세기초께 가야지방에서 유행했던 횡혈식묘제(橫穴式墓制)인데다가 금관등이 부장되고 또 순장의 자취도 드러나 일단 그시기로 비정되고 있다. ▼비록일부 도굴로인한 파괴와 유물의 교란이 있다고는 하나 묘제와 그 양식의 변천및 부장된 토기류의 분류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은 1천5백년을 상거한 그무렵의 사회상과 문화를 짐작할수 있게될것 같다. 특히 고대사부분가운데서 아직도 많은 의문에 덮인 가야사를 알아내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문제는 임당고분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그 발굴작업의 확대여부, 그리고 보존책은 한대학이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면에서 너무 부담이 큰듯한 점이다. 앞으로 이지역의 고분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한 중앙의 관심과 지원이 따랐으면 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경복고등학교
망년파티

일 시 : 1982년11월27일(토)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 인 호텔
(에그링톤과 돈밸리 하이웨이)
회 비 : 20불(1인당)
연락처 : 298-8573 신동호
663-4663 이수철
준비사항 : 선물교환(10불 범위)
특기자랑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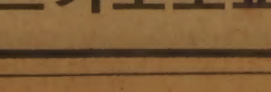
경복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이영현

—알 림—

스카보로교회

본 교회는 지난4주간 400 McCOWAN RD.에서 예배를 드려오던바 11월14일 주일을 기하여 아래와 같이 장소및 시간을 변경하여 모이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특히 스카보로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장소 : 3385 LAWRENCE AVE.
EAST. SCARBOROUE
(CHURCH of THE MASTER)
시간 : 주일 오후2시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도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스카보로교회

성동고교
송년파티의
초대

한해가 또 지나는군요.
해가 저물기전에 한자리에 모여보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지난날을 결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찬 모임이 되도록 전회원 부부동반하여 꼭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4일(토)
일 시 : 오후7시
장 소 : 그라나다(Granada식당)
920 Younge St.(923-3060)
연락처 : 함덕상 261-0739
유승관 267-1380

성동고등학교동창회
회장 김 봉 균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 3重 철조망… 이스라엘軍 경비森嚴

## 安炳璨특파원 東베이루트 第2信

## 빈銃멘 美軍3시간교대순찰
## 民兵隊武装해제는 아직未決

【베이루트=安炳璨특파원】 대한항공의 기술조사팀이 15일 베이루트에 도착, 레바논 공항당국과 협조하기 시작했다.

파리의 샤를르·드골 공항 KAL사무소장 全松德씨와 리야드사무소장 李哲榮씨는 DC 10機의 베이루트국제공항착륙조건을 조사하러 이곳에 왔다.

급유, 기체점검, 활주로상태 등 항공기출입에 따르는 기본자료를 알아보러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KAL機의 베이루트기착문제를 검토하는것은 앞으로 있을수있는 한국인승객의 수송에 대비한것으로 서울과 베이루트간 직접비행을 전제로한 기초조사일뿐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파하드왕을 만나러갔던 아민·제마엘 레바논대통령은 2일간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왕국은 적극적으로 레바논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외교적용어로 여행의 성과를 표시했다.

제마엘이 1차적으로 사우디에 원하는바는 사우디가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해서 시리아군이 이스라엘군과의 대치선인 베카계곡에서 철수하도록 도와달라는데 있다.

레바논정부가 파견을 요청하고있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근무처가 베이루트도시를 벗어나 베카계곡으로 확대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마엘정부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레바논영토내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른바 非레바논군사력을 레바논영토내에서 몰러나게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레바논정부군과 미·불·이3국 평화유지군이 東베이루트로 순찰을 확대한직 후 베이루트에는 미군이 결국 베카계곡으로 통하는 베이루트—다마스커스 고속도로까지 순찰임무를 확대하려한다는 美국방성측의 발언이 들려왔다.

레바논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평화군 참가를 요청한것은 그얼마뒤의 일이다.

제마엘정부는 고작 우리나라 京畿道만한 전국영토(1만4천㎢) 가운데 東西거리 10㎞정도의 수도 베이루트에 갇혀있는 꼴이다.

美·佛·伊 3국의 평화유지군도 베이루트에서 소극적 순찰, 보초근무만을 하고있다. 병력은 미군1천2백, 프랑스군1천6백50, 이탈리아군1천5백등모두4천3백50명에 불과하다.

다국적평화유지군은 제마엘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한 연합협조위원회의 협의에따라 배치지역과 관할업무를 결정한다.

이위원회의 결정에따라 11월3일 아침레바논 정부군은 처음으로 기독교민병대의 거점인 東베이루트에 장갑차량을 이끌고 들어가 검문소를 설치했다.

하오3시에는 프랑스군과 이탈리아군이 계획대로 정부군을 뒤따라 순찰업무에들어갔다.

그러나 공항옆 미군지휘소(GP)에서는 12명의 美해병순찰대원이 분승한 4대의 지프가 일단 출동태세에들어갔다가 갑자기임무를 취소하는 혼란이 있었다. 미군대변인 베일·다이대위는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출동할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에 美국무성특사 모리스·드레이퍼는 『미군의 순찰지원은 단순히 軍명령계통에 관계된 절차상의 차질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3개국 평화유지군은 각35명으로 조직된 순찰병력으로 3시간씩 근무키로 약속하고 있으나 24시간 순찰제를 원칙으로 삼지는 않고있다.

3개국 순찰조가운데 美해병측만은 유독 야간순찰을하지않고있다.

안테나에 성조기를 매달고 M60기관총을 건 미군순찰지프가 東베이루트에 나온것은 다음날 이었다. 美해병대원은 M16자동소총과 45구경권총을 휴대하고있으나 실탄은 장전되어있지않다.

미군은 탄대를차고 총격을 받았을경우에만 응사하라는 명령을 받고있다.

이처럼 미군의조심성은 베이루트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프랑스낙하산병과 이탈리아 산·마르코부대원은 휴무때 자주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이들이 레바논아가씨나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담소하는 정경도 가끔 볼수있다.

이곳의 낮기온은 낮최고섭씨19도에 전형적인가을날씨.

더구나 예년에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雨期에 접어들지만 올해는 아직비가 내리지 않고있다.

이스라엘군은 도로를 가로질러 3중철조망을쳐놓고 겨우 차량이 빠져 나갈수 있게 숨구멍만을 터놓았다.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자동차행렬은 한없이 길게 밀린다.

이스라엘군은 이것도 미흡해 14일낮 크레인을 동원해 철조망대신 흙더미로 도로위에 높은 둑을 쌓아 버렸다. 美해병은 그광경을 물끄러미 건너다볼뿐이다.

레바논정부군은 현재 東베이루트 팔랑헤黨본부에서 3㎞떨어진 다우라지역에 지휘소를 설치해 놓았다.

西베이루트에서의 경우 3국평화군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정부군은 지난 9월 좌익회교도의 무장을 해제했으나 東베이루트에서는 사정이 달라 팔랑헤黨의 사설방송인 『레바논의 소리』는 『동베이루트 주민은 정부군과 평화유지군을 환영하고 협조한다』고 방송했으나 가장 중요한 무장해제문제는 아직도 미결상태다.

다만 팔랑헤黨 민병대 대변인 하비하예크는 『우리는 대원에게 질서회복임무를 정부군에 넘겨주고 협조만 하도록 명령했다』면서 『우리의 무장해제명령은 대통령이 내려야한다. 우리는 아직 그런 명령을 받은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것은 현직대통령인 아민·제마엘이 암살된 자기동생 바시르·제마엘의 조직인 팔랑헤당과 아직도 미묘한관계에있고 통제하기 수월치않다는 입장임을 알려준다.

정부군은 東部지역에서 가택수색도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미국정부는 평화유지군이 군사적임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평화군의구성을 多國籍으로 확산시키려는듯 하다.

미국은 군사지원을통해 레바논정부군을 강화하려한다.

베이루트에있던 美국방성차관보 프란시스·웨스트는 제마엘과 긴밀군사원조계획을 상의했다. 우선 레바논정부군 16개대대를 수개월안에 중무장시키고 50~60명의 미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문제가 얘기됐다. 그중에는 西獨의 美유럽주둔군사령부가 베이루트에 지휘소를 설치하여 정부군의 장비지원및 훈련을 담당한다는계획도들어있다.

◇베이루트市 巡察하는 佛 平和軍 美·佛·伊3국평화유지군의 일원인 프랑스 공수부대원들이 베이루트시를 순찰하고있다. 【렉스프레스誌】

# 戰後세계와人物

###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17>

## 李光耀·멘지스

# 둘다 洞察力뛰어난 天賦의 지도자
## 外交감각지닌 멘지스, 國民들사랑도 한몸에

69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주앉은 닉슨과 李光耀。

내가 만난 지도자중에서 가장 유능한 두 사람이 작은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李光耀수상과오스트레일리아의 故로버트·멘지스 수상이다.

이 두사람은 비록 좁은무대에서 활약했을망정 大人물이었다. 아마 시대와 장소가 달랐다면 처칠, 디즈레일리, 글래드스톤과 같은 세계적지위를 누렸을지 모른다.

두사람의 개성은 크게 달랐지만 뒷배경과 앞을 보는눈은 이상할만큼 비슷했다. 두사람 다 이전 영국식민지의 지도자였다. 李光耀와 멘지스는 모두 탁월한 변호사들이었고 바로 이합법적인 직업을통해 재산을 모을수 있었다. 그러나 法이란 정신적, 지적면에서 한계가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똑같다.

이두사람은 정력적이고 논리정연하며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역사적 우연성에의해 작은나라의 지도자로 머물러야했지만 세상을 국지적 제한적으로 바라보기를 철저히 배격했다. 세상을보는 눈이 포괄적이고 포용력이있어서 이들과의 대화는 정말즐거웠다. 또한 그들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親서방이긴해도 맥아더의 표현대로 두사람다 세계의 세력균형이 자신들의 지역에 유리하게 변화되고있다는 사실도 알고있었다.

李光耀와 멘지스는 西태평양지역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번영되고 안정하며 가장영향력있는 국가로만들려고 노력했다.

인간적 측면에서 李光耀와 멘지스는 퍽대조적이었다. 멘지스는 정신과 시야도 그렇지만 체격이 오스트레일리아 땅덩어리 만큼이나컸다. 키가 6피트2인치 (약 1백90㎝), 몸무게가 2백50파운드에 달했다. 얼굴은 훤하고 돋보였다. 머리는 숱이 많고 곱슬이었다. 눈썹은 존·L·루이스의 것과 흡이 같았다. 그의 고답적인 풍모는 비록 귀찮게 구는 국회의원과 신문기자들을 다루는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처칠과 같이 행정부내 동료각료들의 기분을 퍽이나 상하게 해놓았으며 국민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으되 행정부동료들로부터는 별 호감을 사지 못했다.

李光耀는 체격이 작고 부사적인 근육질이었다. 눈에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는 날카로운 섬광이 번득였다.

멘지스가 사교적이며 재치가 있는데 반해 李光耀는 날카롭고 기회주의적이며 타산적이고 우회적이었다. 멘지스는 부담없는 대답을 즐겼다. 對국회전략보다 대답을 훨씬 더 좋아했다. 그는 의회전략에서도 뛰어났으나 결코 그걸 즐기지 않았다. 멘지스는 좋은 술, 음식, 잘 믹스한 마티니의 감식 전문가였다.

李光耀는 그러나 대부분의레크리에이선이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멘지스를 만났을때 그는 고급 시거를 피워대거나 나에게 정치적 충고를 해주는것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예사였다. 기민하게 외교사를 꿰뚫어보고 오스트레일리아 정치에 대해 신랄한 논평을 했다. 우리들의 대화는 밀도있는것이었고 기분 만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7년 처음 만나본 李光耀는 옮에 갇힌 사자처럼 천천히 그리고 고른 보조로 걸었으며 넓고 먼 얘기를 급히 터뜨리듯 말했다.

그는 마치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크지 않는 자기 직책에 갇혀 있는듯 느끼고 그 자리에서 풀려 더 넓은 공간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결코 사사로운 얘기는 하지 않았다.

李光耀와 멘지스의 가장 큰 유사성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었다. 이들은 결코 공상가들은 아니었다. 멘지스는 영국풍의 의회민주주의자였다. 王室에 충성하고 비상시엔 뭉치는 것이 영국풍의 의회민주주의자다. 그의 경제적 보수주의는 첫 읽기를 마친후 자신의 현실생활로 표현했다.

그는 수상자리를 물러난후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했다.

李光耀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사람이다. 정치이론에 관심이없고 싱가포르를 강하고 부자로 만드는 자신의 목표에 직접 도움이 되지않는 것은 경멸했다. 사실 두사람 모두에게 국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을확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들의 비사변적 시각때문에 李와 멘지스 모두 국민의 물질적 욕구에는 관심이 있으되 정신적 욕구에는 관심이없는 물질주의자라고비웃음을 사왔다. 이들의 內治업적은 경제적 성과에 있다. 멘지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큰 경제산업의 확대성장을 주도했다. 李는 싱가포르를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놓았다. 이두나라 국민들은 사실 西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됐다.

富를 추구하는 정책은 『富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조소도 많이 받았다.

戰後 지도자들중에는 국민에게 허명과 민족적 자존심, 독립을 고취한 인물이 많았다. 대신 그들은 가난하고 때로는 굶주리는 상황에 직면해야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의성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끔 귀에거슬리는 수사와 정치의 光彩에 의해 정치지도자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위는 비어 있는데도 귀는 꽉차 있는 상태로 잠자리에들어야만 했다.

李光耀는 혁명가였다. 그러나 부류가 다른 혁명가였다. 그는 결코 본질과 수사를 혼동하지 않았다. 또한 결코 사상이 상식을 압도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1959년, 집권했을때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란 전혀 없고 인도, 중국, 말레이지아族이 섞여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영국에 대한 反식민 적개심이 위험스런 수준에 치달리고 있었다. 그는 공산혁명을 방지하려면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과격해야 함을 알게 됐고 특유의 정치적 게임방법을 고안해내게 됐다. 즉 『말은 좌익적인것이 좋다. 그러나 결과는 오른쪽으로 걸으란』는게 그것이다.

◇1952년 영국수상관저로 처칠을방문한 멘지스。

## 常識線에서 改革성공한 李首相

선거전까지 李光耀가 이끈 인민행동당은 실제로 정강이 毛澤東을 흉내낸데 불과한 1개 공산주의 戰線에 불과했다. 그는 철저히 反식민, 反서구정치를 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민적으로 선거운동을했다.

백인의 죄상에 대해서도 통박했다. 그러나 당선된후 그는 1백명이상의 이전 공산주의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즉시 싱가포르의 부유한 중국인 엘리트를 회유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안전함을 보장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일본 서유럽 미국자본들을 유치, 싱가포르의 번영을 창조해낸 장본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싱가포르주식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李光耀수상이 해낸 사회개혁은 실용적 목적을 찾고있다. 1950년대말 그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공산화한다. 우리가 시도하다 실패해도 싱가포르는 공산주의가 될것이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멘지스는 수상을 두번 지냈다. 1939년에서 41년, 그리고 1949에서 1966년까지.

1941년 노동당의 사회주의정책에 밀려 그는 잊혀진 중산층으로 머물렀다가 다시 49년 수상이 됐다. 수상으로서 멘지스는 李光耀수상처럼, 民기업을 위축시키지 않고 외국자본을 유치, 국민복지에힘썼다. 『그래서오스트레일리아는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 번영을 누릴수 있게 됐으며 주요한 구동의 세력국가가 됐다.

## 李振義 문공장관 出版人모임 致辭
## '퇴폐적인出版 圖書市場문란'

李振義문공장관은 16일 하오 출판문화회관에서있은 문공부추천도서 選定결과발표를위한 출판인모임에 참석, 致辭를통해 『미래에 다칠 큰 변화와 역경을 직시하고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출판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독자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는출판인만이 미래의 승리자가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우리출판계 일각에서 횡행하는 상업적 投機주의, 한탕주의, 拙速주의로 인한 저질, 불량, 퇴폐서적 출판은 도서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케하고 출판계전체에대한 독자들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귤아가씨들 로비활동

濟州감귤아가씨들이 로비활동에 나섰다。16일상오 제2회 감귤아가씨로 선발된 安愛子양(20·진)등 3명은 朴鍾汶농수산부장관을 예방<사진>, 감귤1상자를 선물하면서 『풍년이든 감귤을 제값받을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朴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올 濟州감귤수확량은 지난해의 21만톤보다 25%다 증수한 25만톤이 예상된다。미국의 목화아가씨처럼 감귤아가씨들은 앞으로 1년간 전국을 돌며 판촉활

## 국민당, 5개稅法代案 확정
### 所得稅 控除총액·누진단계도 늘려

국민당은 16일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등 5개稅法에대한 代案을 채택, 발표했다.

국민당은 소득세법代案에 있어 年1천8백만원이하 소득에서 6천만원 초과소득까지의 累進단계를 17단계에서 20단계로 늘리고 1백80만원이하 소득의경우 현행8%의 稅率을 5%로, 6천만원초과는 현행60%를 50%로인하할것을 주장했다.

또 현행근로소득 控除총액 88만원을 1백만원으로 인상하고 小額株主의범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억원으로확대토록했다.

법인세에 있어 年間 5천만원이하 법인은 營利, 非영리법인 모두 稅率을 18%(현행, 영리 22%, 非영리20%)로 單一化하고 5천만원초과 법인에대해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공개법인 22%, 非上場대기업 25%로 했다.

## 콜럼비아號 어젯밤歸還

【에드워즈空軍기지(미캘리포니아주)AP=聯合】 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2개주요 임무중 통신위성발사에는 성공했으나 우주유영은 기술상의문제로 결국 취소한가운데 16일상오6시34분(한국시간 16일밤11시34분)으로예정된 에드워즈 공군기지착륙을 앞두고 지구귀환준비에 들어갔다.

## 林鍾乾·卓成萬기자 아동복지 취재向美

본사 外信部 林鍾乾기자와 자매지 週刊한국 卓成萬기자는 홀트아동복지회 초청으로 美國의 아동복지실태를 취재하기위해 16일하오 노드웨스트便으로 출국했다.

### 內外動靜

▲金相浹국무총리는16일 韓中의원친선협회 林棟 自由中國측 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 記者의 눈
## 歪曲수정의 새 불씨

지난여름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세찬 항의를 받아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일본의 歪曲교과서파동은 결국 文部省이 소극적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눈가리고 아웅』하는式이 될것같다.

3·1독립운동을 「폭동」으로, 대륙침략을 「진출」로 표기했던 일본문부성은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의 담화에따라 『일본정부가책임지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으로 일단 외교적 수습은 됐는데 16일 열린 문부성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는 부성이 또다시 검정에 필요한 까다롭고 구체적인기준을 새로 제시함으로써왜곡교과서의 실질적시정이 어렵도록 한것이다.

문부성은 당초 심의회의 답신을받아 이를 문부성廣報에 게재, 83년과 84년에 사용될 왜곡교과서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왜곡부분을 바로잡아 가르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으로 있었다.

이로써 왜곡교과서 문제는 일단행정적으로도 매듭이지어졌다고 보았는데 실제내용은 크게 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데 문제가있다.

문부성이 새로 제시한 『구체적인 검정방침』에 따르면 『3·1독립운동을 비롯한 南京사건, 강제 징용등의 피해상황과 피해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史料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필자가 소신껏 기술할수없도록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식민지통치때 한국에서 실시한 土地조사로 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겼으며 北間島로 유랑생활을 해야했던 부분에대해 문부성검정기준은 『이 토지조사가 농민의 땅을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것같은 표현은 부적당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土地조사에 의한 결과로 한국농민이 농토를 빼앗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토지조사가 한국농민의 농토를 빼앗기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억설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문부성은 교과서심의회를열어 『인접국과의 우호친선을 검정에 반영한다』고 검정기준을 추가했으면서도 이를 적용하는구체적 검정방침으로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고리」式의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여 왜곡부분을 둘러싼 말썽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다.

한 여름의 더위를 더욱 못견디게 만들었던 교과서파동은, 결국 왜곡부분에 대한 한국등의 수정요구와 일본 左傾여론의 검정제도시비 사이에 끼어 「史實」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일본정부의 엉거주춤한 자세때문에 흐지부지 끝날지도 모른다.

【東京=宋孝彬특파원】


#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지휘 : 박재훈 박사
독창자 : 이주연(S), 양경자(M.S), 조영호(T) 신경욱(B) )
합창 : 토론토 한인합창단
(찬조 :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 연합교회 성가대(150명))
오케스트라·주로 토론토 심포니 멤버

때 : 1982년12월 4 일(토) 저녁 8 시
곳 : 메시홀(토론토)
■(12월 6 일(월)은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 연주)
입장권 : $12(A), $11(B), $8(C)
구입처 : ● 합창단원들과
☎222－4662(MRS. 김)
222－2901(MR 리)

주최 :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회
후원 : 토론토 교역자협의회

# 차상범 회계사무소
# 개업 인사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Lakeshore Blvd.에 회계사무소를 열어 세무와 회계업무및 경영상담으로 교포 여러분들을 성심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삼가 바랍니다.

학력
B.A. in Economics — Warren Wilson College Swannanoa, N. Carolina
M.Sc. in Economics —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Louisiana
Diploma in Accounting — Wilfrid Laurier University waterloo, Ontario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 Shore Blvd. W. Toronto, Ontario M8W 1M8
☎ : (Bus.)(416) 255－8301, 259－5822 (Res.) (519) 653－3329

# 80년도 미스 프랑스 한국人의 아내 된다

## 신랑은 心靈과학 심취한 文學徒

### 서울 유니버스大會서 만나 戀書2년

**柳在承씨 쇼케孃**

◇한국인의 아내가 될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쇼케양。 80년 서울미스유니버스대회때참가,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다。

우리나라에 왔던 80년도미스프랑스가 30대 한국남자의 아내가 된다。 꿈같은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날아온청첩장과 약혼기념사진이 현실임을 알려준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화제가 된 신랑 신부는 柳在承씨(32)와 지난80년 미스 유니버스대회(본사주최)때프랑스를 대표한 미녀로 출전, 우리에게 낯이 익은 브리지트·쇼케(26·BRIGITTE CHOQUET)양。 쇼케양은 미스유니버스에 출전한 수많은 세계의 미녀중 가장 지적인미를 갖춘여성이었다。

동화속의 왕자처럼 서양미녀의 남편이될 柳씨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지만 『柳리마』란 필명으로 남녀의신화적사랑을 소재로 장편소설을 펴내기도한 이색문학도。

柳씨는 현재 프랑스중부지방 알리에의 쇼케양 자택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기거하고있다。 이들은 오는 27일하오 마을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서 신방을 꾸민다。

쇼케양은 16일하오 본사와의 국제전화에서 『남편은 당분간 처가살이를 하게될것』이라고 밝히고 『비록 피부와 국적이 다르지만 세상의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생활을 꾸려나갈 자신이있다。 지금도 결혼식을할 생각을하면 황홀하기만하다』고 기뻐했다。

柳씨와 쇼케양이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신비스런 소설과 같다。

柳씨는 柳洪烈씨(71·龍山區西界洞238의35)의 4남1녀중 막내아들。 16세때 어느날 이상한꿈을 꾼다。 금발머리 파란눈에 어깨띠를두른 예쁜여신이 그의 반려자가되는 꿈이었다。

柳씨는 이꿈을꾸고는 가족들에게 『나는 커서 서양여자와 결혼하게된다』고 말했는데 물론 가족들중 누구한사람 귀담아 듣지않았다。

柳씨는 이때부터 하던 공부(I고중퇴)도 팽개치고 꿈의 계시를 알기위해 종교서적과 심령과학서적에 파묻혔다。

독실한 천주교신자로 「티토」란는 영세명을 가졌던柳씨는 이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황은 쇼케양을 첫눈에 보고 멈춘다。 柳씨는 쇼케양의 출현이 「신의 계시」라고 지금도 믿고있다。

쇼케양을 처음본것은 80년 7월 본사주최 서울미스유니버스대회때 발간된 안내책자의 인물사진에서였다。 무작정 대회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을 찾아가 그녀를 먼발치로 봤다。 계시의 여인으로 판단한 그는 프랑스집주소를 확인, 편지를 띄웠다。

프랑스어를 모르는 그는 서툰 영어로 대뜸 연문을 썼다。 전생에서 이미 반려자로 점지됐다는 묵구류같은 내용이었다。

진짜로 신의 계시였음인지 쇼케양으로부터 즉시 답장이 왔다。 그로부터 사랑의 밀어가 담긴 연서 수백통이 프랑스와 한국을 오갔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당시 한국을 방문한 쇼케양은 취재기자들에게 『한국은 처음왔지만 어딘가 낯이 익다。 한국남성들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35-24-35의 균형잡힌 몸매이지만 특히 남다르게 지성미가 몸에 배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치렁치렁한 갈색머리와 초록색눈은 신비감마저 자아낸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의 외동딸。 위로 오빠 한명이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관。

쇼케양이 시부모대에 보내온 편지에 그들의 결혼이 부모의 승낙을 받은 것임을 알리고있다。 『아무런 애로가 없었으며 지난5월 순조롭게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

柳씨는 금년봄 자신을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마르스, 쇼케양을 비너스로 비유 그들의 운명적 만남을 그린 소설 「마리스와 비너스」를 발표, 화제를 모았다。 이때 자신이 미스프랑스와 결혼한다는 柳씨의 「주장」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쇼케양은 지난8월 柳씨에게 『빨리 오라』는 편지와함께 초청장을 보내왔다。 둘은 9월초 프랑스공항에서 처음 상면한다。

柳씨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편은 못된다。 아버지는 해방직후 경찰관을 했다가 仁川올림포스호텔에 근무하다 몇년전 정년퇴임했다。

柳씨는 출국할때 비행기표를 제외하고 단몇백달러의지참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갈색머리 아내를 위해 한복과 고무신등을 챙기는것을 잊지않았다。

이들의 결혼식이 확인된것은 지난주。 쇼케양과 그녀의 부모 이름으로된 청첩장과 약혼기념 사진이 오고부터다。

약혼기념사진에는쇼케양의 부모를 배경으로 柳씨와 쇼케양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柳씨는 미남형은 아니지만 172㎝의 키에 60㎏정도의 약간 호리호리한편의 매력적 남성이다。

이들의 결혼식엔 신랑측가족으로 마침 스위스에 유학중인 형 成龍씨(35)와 여동생 美숙양(27)이 참석하게된다。

◇결혼식에 앞서 다정한 포즈를찍어 한국의 시부모대에 보내온 쇼케양의 기념사진。 왼쪽이 남편이될 柳在承씨。

# 金得九 回生 절망적

## 主治醫 ″의학적으론 死亡상태″ 宣告

### 人工호흡기 제거여부 오늘 결정

◇넋잃은 어머니 金得九의 수술소식을 듣고 서울로 달려온 어머니 梁씨는 식음을 잊고 아들의 용태가 호전되기만을 빌고있다。

【라스베이가스=金普宗·邊鴻鎭특파원】 사흘째 사경을 헤매고있는 金得九선수(23)는 16일밤현재 소생이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다。

국내외 팬들의 커다란관심속에 金이 입원하고 있는 네바다州 데저트·스프링스 병원측은 16일 상오2시(이하 한국시간) 金이 허리에서 목까지 튜브를넣고 특수용액을 투입, 혈액순환기능을 촬영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얻지못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촬영후 金으로부터 산소호흡기를 3~4초씩 제거, 반응을 살폈으나 예상대로 심장박동이 멈춰 계속 산소호흡기를 부착시키고 있다。

주치의인 뇌전문의 해머그렌박사는 이같은 결과에대해 『金은 의학적으로 사망상태』라고 선고했다。

병원측은 산소호흡기를 뗄것인지여부를 17일 최종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했다。

그러나 金의 매니저 金賢治씨는 16일 상오5시 이번 대전 공동 프로모터였던 테리·윌든씨(시저스·팰리스 호텔 관리책임자)와 봅·에럼씨(톱·랭크社 회장), 駐美LA총영사관 趙南信영사와 4자회담을 가진자리에서 金선수에게 산소호흡기를 계속 부착해줄것을 요구했다。

金씨는 15일 하오2시20분 한국권투위원회(KBC)와 전화연락도중 金선수의 셋째형 金根龍씨(33)와 통화, 金선수에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았었다。

**맨시니도 快癒기도**

한편 레이·맨시니는 14일 밤11시께(한국시간15일하오4시) 데저트·스프링스병원에들러 5분동안 침통한 표정으로 기도한뒤 돌아갔다。 맨시니는 이튿날아침 자신의 변호사인 콘스탄트·프라시노스와 리차드·화이트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 『가족들과함께 당신을위해 기도하겠다』고 자필편지를 보내왔다。 맨시니도 대단한 상처를입었으나 자가치료를 받고있다。

**韓人會서 모금운동**

3천여명의 라스베이가스한인회(회장 李동훈)는 별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5일부터 라스베이가스의 6개 한국인교회서는 일제히 金得九를위한 기도회를 가졌으며 30여명의 교포들은 병원앞에 모여 온갖지원을 아끼지않고 있고 17일 프런티어호텔서 열릴예정인 한인회 회장선거를 겸한 총회에서 준비위를 구성,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金得九의 병원 중간치료비는 6만달러에 육박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치료비는 네바다州권투위원회와 미국측 프런모터가 부담키로 돼있다。

## 새마을號 열차 브레이크 故障

### 1시간延着 환불소동…한때 ″쉬쉬″

釜山 發 서울 行

16일상오10시 釜山을 떠난 서울행새마을호열차가 브레이크고장으로 1시간3분이나 연착, 환불소동을빚었다。

이날하오2시50분서울역에도착할 예정이었던 이 열차는 東大邱역을 출발하면서부터 기관차와 객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나 10여차례나 머물면서 응급조치를하느라 37분늦게 大田역에 도착했었다。

철도당국은 大田에서 기관차를 바꾸었으나 객차의 제동장치는 고치지않은채 다시 출발, 大田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또6차례나 정거했다。 懷德역 못미쳐서는 1호차의 승객을 특실로 옮겼는데 5호와 4호객차의 바퀴에서는 열을 받아 고무타는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

이런소동속에서도 승무원들은 열차내 방송을통해 처음에는 기관차의 고장을 철로변공사와 지하철공사로 열차가 늦는다고 변명하다가 승객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기관차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해명했다。

## 전남 珍島·麗川에도 황새로보이는 稀貴鳥

【光州·麗水】 전남珍島와麗川에도 황새로 보이는 희귀조류가 날아와 관심을모으고있다。

珍島郡臨淮面屈浦里와高亭里 중간지점에있는 저수지에 지난16일부터 황새로 보이는 희귀조 2마리가 머물고있다는것。

이희귀조는 80㎝의키에 양쪽날개를 펴면 1m60㎝가량되며 양쪽날개끝과 꼬리끝부분만이 검정색을띠었을뿐 온몸이 흰털로 덮여있다。

이새는 臨淮面高亭里 崔萬源씨(48)가 발견, 15일하오 珍島郡에 신고해옴으로써 밝혀졌다。

한편 전남 麗川郡華陽面昌武里 소백조마을앞 하구언에도 황새로보이는 희귀조1마리가 날아들어 관심을모으고있다。【聯】

## 두被告人 死刑선고

### 冷泉洞 3모녀 殺害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李永範부장판사)는 16일 서울西大門區冷泉洞3모녀 피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金永泰(23) 丁錫範(28)등 두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6월2일 金永泰피고인의 4촌누이 李君子씨집에들어가 등산용도끼로 李씨와 2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 ″幼稚園 시설기준완화 검토″

### 李문교 國會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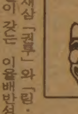
李奎浩문교장관은 16일 『현행의 교육법상 유치원인가 기준은 유희장20평과 교실15평이 필수적시설기준으로 되어있으나 유아교육의 진흥이라는목적아래 그시설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밝히고 『기존의 골목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교원등도 이러한 필수적기본시설과 자격교사만 확보하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으로 정식인가를 해줄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국회文公委에서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진흥법안에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밝히고 『예체능계 학원에서도 사설강습법에따라 특기교육만시키는경우나 교회선교원에서 순수한 선교목적으로 운영되는경우 이법에 저촉되지않으며 이러한 기관에서도유아교육을위해 최소한의 시설과 요건을갖추어 정식인가신청을할 경우 허가를 내줄방침』이라고 밝혔다。

## 링 닥터

### KBC 醫務위원장 李鍾范박사

## ″링의 選手보호 制度的장치 있어야″



권투중계중에 주심이 부상당한선수를 링·닥터에게 보이는 모습을 가끔 보게된다。 선수의 부상정도가 경기를 계속할수 있는지에 대해 의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나 金得九선수가 死境을 헤매고 있다는 불행한 소식을 계기로 선수보호문제와 링·닥터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있다。

한국권투위원회(KBC) 의무위원장 李鍾范박사(45·사진)는 金선수의 타이틀전을 TV로 지켜보다가 『저친구 저렇게 잔매를 맞다가 혹시…』하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수 없었다。 예감은 현실로 나타났고 그순간 새삼 「권투」와 「링·닥터」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다。

다른 경기와 달리 복싱은 쉽게말해 환자를 만드는 운동인데 링·닥터는 다른의사와달리 환자를만드는일을 도와주고 있는게아니냐는 역설이 통하기때문。

만능스포츠맨인 李씨는 釜山大醫大를나와 외과병원을 개업하던중 동양 페더급챔피언이었던 黃鐘善선수의 후원자가된것이 인연이 되어 77년KBC의 링·닥터가된 인연이었다。

시합이 있는 날이면 경기 8시간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하고 끝난후엔 부상정도를 진단해야하기때문에 하루를 다 뺏긴다。 교통비만받고 하는일이지만 2년동안 5천여경기에 참여했다。

이젠 시합도 많아 혼자 담당할수가없어 지난1월 7명의의사로의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0라운드이상을 뛸수있는 A급선수 1백20명의 정밀신체검사카드까지 마련했다。

李씨는 이정도로는 선수를 완전하게 보호할수없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는다。 금년들어서만도 한국선수의 링 사고가 벌써 3번이나 일어났다。

『선수보호는 말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판들에게 초보적인 의학교육을 시키고 글러브의 무게를 조절하는 한편 관절부분의 충격을 완화해야하며 헤드기어를 착용시키는 정등 李씨의 제언은 끝이 없다。

두드러진 외상이 없는한 시합을 중지시킬수 없는 현실정에서 이정도의 보완책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하는 도중에도 『金선수의 병세가 호전됐다』는 특파원의 전화는 없었는가고 거듭 묻는다。【金宗來기자】

## ″투기轉賣는 10%″

### 開浦 주공아파트 조사결과

서울開浦洞주공아파트전매자들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주택공사로부터 고발된 1천5백30명의 전매자가운데 16일현재 6백20명에대한 조사를 끝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중 90%가량은▲중도금등 분양금을 낼능력이없어▲근무지가 바뀌어 전매했거나▲전세를 준사람▲아들등에게 양도하는등 선의의 전매자인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10%가 투기성이 높은 전매자인것으로 밝혀졌다。

## 대낮 主婦피살

### 집보다 흉기맞아

【昌原】 16일 하오2시께 경남昌原郡龍池洞龍池아파트201동404호 黃태원씨(27·한국중공업품질관리부사원)집에서 黃씨의부인 朴지고씨(23)가 목이 졸리고 머리에 흉기로맞아 신음중인것을 이웃주부 李미희씨(25·반송아파트)가 발견, 昌原산재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李씨에 의하면 이날 하오1시35분께 숨진 朴씨집으로 놀러갔는데 장남 재현군(생후5개월)이 울고있고 안방과 마루는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朴씨는 안방화장대앞에 엎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어 아래층 李금자씨(37·여)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는것。

## 手配 鄭모씨 無嫌疑밝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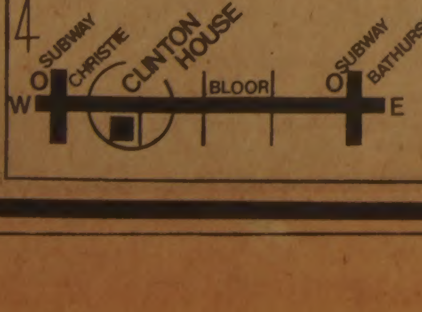
### 교장부인 살해사건

서울道峰區水踰5洞 教岩국교장부인 崔玉珠씨(49) 강도살인사건을 수사중인경찰은 16일 그동안 유력한용의자로 찾고있던 목사 鄭모씨(40·경기漣川郡)를 경남梁山의 모기도원에서 찾아 혐의가없음을 확인했다。

경찰에 의하면 鄭씨는 지난달8일 자신이 용의자로몰리고있는 사실을알고 혐의가 풀리기를 기도하기위해 그동안 자신만이 아는 토굴에서 혼자 「40일 다시기도」를 하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당일의 알리바이도 입증됐다는 것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크링돌 BLOOR 에서 만납시다!!
친한 친구와 다정한 연인과 함께...
각종 파티·회갑연
결혼피로연
□150명 수용의 메인홀
□ 50명 수용의 연회실
□ 50명 수용의 각텔라운지
□간이 모텔아파트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535·9541 대표 김영규

한인상공인협회
로고현상 모집공고

제1차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협회로고를 아래와 같이 선정코저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협회이름 : 한인상공인협회 (K.C.C.C.)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2. 현상금액 : 1등 $500과 부상
2등 : 부상 3등 : 부상
※참고사항 : Ontario Chamber of Commerce Logo를 참고하시기 바랍.
3. 응모마감일 : 1982년12월10일
4. 보 낼 곳 : Toronto Eaton Center P.O. Box 330
Toronto, M5B 2H1

한인상공인협회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 「브」없는「브政策」우선 계승

## 平和제스처로 經濟재건 노려

**브레즈네프 以後 <5>**

**東北亞-中東정책**

## 韓半島등 신뢰 회복 주력
## 中共·美·日「이간政策」펼듯

일본의 외교가에서는 브레즈네프에 관해 이런 얘기가 나돌고있다.

브레즈네프는 심장병을 가졌을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거의 파괴되어 멍청이였다. 브레즈네프가 급사하기 석달전 모스크바대학에 다니는 한청년이 친구에게 브레즈네프는 심장만 나쁜것이 아니라 머리도 병들어있다고 말했다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년의 징역내역은 국가원수에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3년이고 10년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목이었다.

이얘기는 폐쇄사회인 크렘린당국이 얼마나 국민들억압하고 국가기밀을 엄격히유지하고있는다것을 나타낸 것이로 철의장막인 크렘린의정책을 정확히 전망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란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日本외무성은 브레즈네프가 사망한후 소련의 東北亞정책은 잠정적으로 볼때『브레즈네프없는 브레즈네프정책』을 계속 계승할것으로 관망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對日·對中共정책은 中蘇화해정책을 축으로한 평화공세를 계속 펴갈것이라고 보고있다.

전통적으로 南下정책을 벌이고있는 소련은 극동군의증강에따른 함포외교와 평화공세를 번갈아 벌일것이란것이다. 외무성은 또한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취임초의 연설에서 美國과의대립관계를 선명히 드러낸반면에 中蘇접근정책을 재확인한으로서 중공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떼어내는 이간정책을 펼것으로 관측했다.

비록 안드로포프가 소련공산당서기장으로 선임됐다하더라도 체르넨코등에의한 집단지도체제로서 당분간 크렘린이 운영될것이며 내부체제가 굳혀질때까지 서방진영으로부터의 공세를 최소한으로 막기위해 평화공존정책을 펼것으로 관측했다.

日·蘇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소련과 일본과의 2개국관계의 문제가아니라 美·蘇및 中·蘇관계등에 의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풀이돼야하며 소련의 남하팽창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한 日·蘇관계는쉽게 화해될수없다고 이곳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소련의 對外정책을 도식으로 풀어보면 스탈린주의적인면이 강하게 대두될경우에는 경제개혁을 중단하는 반면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대외강경노선을 추구했다. 국제적인 비난에의해 소련이 평화외교를 강화할때는 국내경제의 재건과 군비축소에따른 對外유화정책을 추진해왔다.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안드로포프신정권은 이두노선을 절충한 정책을 쓸것으로 전망된다.

안드로포프정권의 인적구성은 아직 미정이지만 체르넨코등 소련지도층이 거의 70대이어서 장기집권은 불가능하며 레닌그라드 당제1서기인 로마노프정치국원등의 진출이 예상되어 60대의 젊은층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하고있다.

더우기 이들세대는 스탈린주의 색채가 엷고 비교적 국제적인 감각이있으며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서방진영과의 불필요한 마찰은해소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련의 한반도를비롯한 東北亞정책은 이런관점에서 볼때는 신뢰관계의 회복을위한 평화외교활동에 적극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대의관심은 中蘇관계로서 외교관생활을 통해 국제감각을 익힌 안드로포프서기장이 누구보다도 中蘇관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안드로포프정권은중공이요구하고있는①中·蘇국경에 배치되고있는 소련군의 삭감과 몽고주둔군의철수 ②베트남의 지원중지 ③아프가니스탄의 철병등 中共의 관계개선조건중 어느부분을 수락할가능성이 짙은것으로 일본외무성은 판단했다. 그이유로써 브레즈네프는 中共이 내세운 개선조건에 직접 관련한 인물이었으나 안드로포프는 이에 무관했기때문에 對中共개선정책을 쉽사리 추진할수가 있는 여건을 가지고있다고풀이했다.

안드로포프는브레즈네프를 비판하지않고 우선적으로 中蘇정상화정책을 추진하여 中蘇화해를 축으로한 서방진영의공격에 나설것으로 이곳전문가들은 분석했다.중공당국도 소련의 中蘇화해정책에대해 신속한반응을 보였다. 중공정부는 브레즈네프장례식에 黃華外相을 보내는한편, 黃華외상으로하여금『안드로포프서기장을 소련의 黨정부당국이 中蘇관계개선을 촉진키위해 새로운노력을 경주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비록 장례식이기는하나 중공각료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中蘇관계의 악화이래 19년만의 일로서 중공정부의 소련에대한 최대의 선의 표시로 간주되고다. 이것은 중공이 안드로포프정권에 의한 中蘇관계개선정책을 적극 찬동하고 지지할것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것으로 해석되며 소련당국도 黃華외상을 정중히 맞아들이고 모스크바 관영 TV에방영하는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또한 브레즈네프의 사망기사제1보를 타전한 세계적인 특종이 中共당국에의해 확인됐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국시간으로 11일하오4시21분 北京의 共同통신특파원은『北京의 공산권소식통에 의하면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10일 사망했다』고 타전해왔다. 일본의 共同통신의 제1보로부터 39분 늦게 소련의 타스통신이 브레즈네프의 사망기사를 확인 보도했다.

소련과 대립관계에 있던 중공에서 브레즈네프사망에 대한 최초의 확인기사가 나온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이곳에서는해석하고있다.

금년부터 표면화한 中蘇개선의 움직임에대해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의 새지도부는 對中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중공에게 한발먼저 브레즈네프의 사망소식을 전달한것으로 추측된다.

日蘇관계의 개선도 서서히 시동됐다. 73년 다나까내각때 소련은 北方영토문제가 미해결의 문제로서 공동성명에 표기함으로써 日蘇관계는 한때 개선될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나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 日蘇관계는 냉각상태로 빠져들었으며 매년가을 유엔총회때 그로미코 소련외상과 日蘇외상회담을 여는것이 양국관계의 유일한 공식접촉으로 되어있다.

日本외무성은 이런 교착된 日蘇관계를타파하기위해스즈끼수상과 사꾸라우찌외상을께 브레즈네프서기장의 장례식에참석, 日蘇화해정책에 계기를 삼으려하고있다.

소련당국도 브레즈네프사후의 계속적인 평화정책에의해사할린석유와천연가스의개발에 일본이 적극참여할것을 요청했으며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日蘇언론인회의에참석한 日本기자들에게 소련의 제1부수상이 일본의 기술과 경제교류의 확대를강조했다.

안드로포프가 軍部를 장악할경우, 가장 골칫거리인 아프가니스탄문제는 해결될것으로 이곳 소련전문가들은전망했다. 국제정세에 밝은 안드로포프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명예로운 철수를하기위해 중공과 외교교섭을 벌일가능성이 있으며 中共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수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줄수있다고 보고있다.

예를들면 중공의 우호국이 파키스탄에게 아프가니스탄의 反정부게릴라에게 대한 원조를 삭감시키는반면에 소련도 베트남에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점차적인철병을 하는방안이 모색될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日本외무성은 소련의 아세안외교의 근간은바뀌지않을 것이며 中蘇화해를 축으로한 西方진영에대한 평화공세가 강화될것으로 분석했다. 소련의 中共접근은 美國과 日本을 약화시켜 소련이 아세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데 있으며 中蘇화해에따라 아세아의정세는 크게 流動할것으로 이곳 外交街는 관망하고있다.

【東京=宋孝彬 특파원】【끝】

◇안드로포프와 黃華 유리·안드로포프 蘇聯共産黨서기장(左에서2번째)과 黃華中共外相이 故레오니드·브레즈네프 蘇聯共産黨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의 장례식이 끝난뒤 크렘린宮에서 베풀어진 리셉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15일AP=聯合】

---

**메아리**

# 見習校長

바다가 가까운 중학교다. 22학급에 학생은 1천4백명. 개교한지 31주년이되었다. 좁다란운동장에 2층짜리 길쭉한 校舍가 하나. 전형적인 시골학교 냄새가 난다. 面事務所소재지라 학교방송이라도 나오면 온마을에 다 들릴것같다.

조그만 교장실의 벽에걸린 校訓은「굳건한 심신으로 創意의 슬기를 모아 명랑하고 소박한 기풍을 기른다」. 새교장이 내세운것인데 그가 직접 새로作詞한 校歌에도「創意」과「素朴」이 강조되어 있다.

現校長이 이학교에 온지는 1년4개월쯤된다. 부임하면서 맨먼저 한 일은 환경정리였다. 주위에 나무를심고 잔디밭과 자갈길을 만들었다. 교장은 잉어를 기르는 연못을파면서『이 연못을 들여다보고있으면 아무도 악한 마음을 먹을수없으니 1천4백명을 수용하는 형무소를 하나 없애야한다』고 교직원들에게 말했다. 복도를 교실의 연장으로 이용하게해서 백과사전같은 손쉬운 책들을 도서실에 두지 않고 복도에 비치했다.

교장은 이 학교에 오기전까지는 교육경험이 없다. 한 見習校長의 교육정신이 궁금하여 그를 찾아왔다.

『특별한 학교로 만들 생각은 없다. 보통학교로 만들것이다. 다만 이웃학교와 비교하지 않을작정이다. 처음에 와보니 학생들이 책을 피했다. 공부하자고 하면 핑계부터 대고 회피할 궁리만 했다. 가난한 동네라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를 챙기지 않는다. 집안일부터 돕고들이나야 공부를 하게되는 환경이니 학생들이 책에 재미를 붙이지 못할수밖에 없었다. 책을 접근시켜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가장싫어하는 과목부터 손을썼다. 영어와 수학이다. 특히 영어는 부끄러움과 체면을모르는 중학교때 굳히지 않으면 평생 어려워진다. 전학년 학생들에게 영어교과서를 배우는대로 모두 외게했다. 영어선생만 가르치지말고 담임선생님도 가르치라고 했든 선생에게 영어책을 사주었다. 매일 등교시간에는 교장이하 전교직원과 영어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이 교문앞에서서 전날배운 영어 單元을 외보게한뒤 학생들을 들여놓는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몸부림치더니 1년남짓만에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있는것같다. 1학년 학생은 한班60명중 56명이 다 왼다. 4명은 遲進兒다. 학생들은 집에 공부방이 없으므로 下校시간이 넘어도 교실에 남고 일요일에도 등교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에 재미를 붙이고나면 나머지는 고구마 덩굴처럼 따라나오게 마련이다. 이제 학생들은 눈을 뜨고 선생들은 신이났다. 학생과 선생의 경쟁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에누리도 외상도 없다는 것을 역설한다.

시골학교는 도시학교보다 학생 수준이 낮은것이다. 그러나 시골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매는 도시학생들보다 더 순박하고 청순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하나 하나 가정환경을 물으면서 눈을 쳐다본다. 이들의 눈동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이 맑은 눈동자를 통해 작렬시키는것이 교장의 보람이다.교장은 해볼만한 직업이다. 그러나 남에 권하고싶지는 않다.『門外漢이 그냥 재미나 호기심으로 할일은 절대로 아니다」.

지난번에는 전교생의 10㎞ 단축마라톤대회가 있었다. 1천4백명중 1천3백80명이 참가했고 나도같이 뛰었다. 중도에서 낙오한 학생은 단5명이었다. 논두렁을 지킬사람은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채찍질한다. 나는 골목대장으로 만족한다. 중학교 교장이 좋다. 설령 대학총장을 시켜준다고해도 나는 싫다」.

문교정책은 전국획일을 피하는것이 좋겠다. 각教委나 일선 학교단위로 각자 선택을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획일은 변명과 도피만 일삼게 할뿐이다.

교장은 처음이지만 다른 자리에서 유익했던것은 이세계에서도 도움이 된다. 학교밖에 있을때는 교장을 쉽게 봤던것같다. 교육경력만 쌓으면 절로 되는것인줄 알았다. 인격이 뒷받침돼야하고 거듭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시골학교의 교장이긴하지만 일이조그만하니까 오히려어떤長官일보다 더 어렵다」

교장은 이어 이렇게 말한다.

『내 세계에 내가 산다. 학교일에는 그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 내 생애를 내가 개척할때 그속에 진지한 보람이있다. 억지로 의의를 찾고자 하지않고 내 세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운데 보람이 생긴다」

이 학교는 慶南梁山郡長安面佐川里의 長安中學校, 교장은 서울시장과 내무장관을 역임한 金玄玉씨다. 【梁山에서】

金聖佑 (編輯委員)

---

# 酷寒期를 避한다지만…
### —民正黨 全黨大會 3월延期論속사정

## 12代總選대비、改編 늦춰
## 새體制로 85년까지 이끌도록

◇주요정당들이 2개월앞으로 정기전당대회를 앞둔가운데 民正黨의 대회延期論은 政街의 주목을 끌었다. 사진은 16일에 있은 民正黨研修院增築기념식.

주요정당들이 내년1월 중순으로 예정된 全黨大會 준비를 서두르고있는가운데 民正黨이 3월로 대회를 延期할뜻을밝혀 政街의 주목을 끌고있다.

민주정당에있어전당대회는 黨총재선출과함께 체제개편과 路線을 재정비결정하는 黨의 최대의행사로꼽히고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한정당의 집안행사의 차원을넘어 政局의 방향과 새로운 질서를 설정、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크며 특히國政운영의 1차적 책임을지고있는 與黨의대회의 내용과 성격은 곧 政局전체、즉 各黨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중요성은 막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執權與黨인 民正黨이나 야당인 民韓·國民黨등은 모두 약속이나한듯 작년1월 중순께부터 차례로 창당대회를 치렀고 창당시 채택한黨憲은 한결같이 2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民正黨의경우「총재의임기는 2년으로하나 총재가 民正黨대통령인경우는대통령의 임기에 따른다」는 黨규정이 있어 내년初당대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위원의임기、중앙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되어있고 국회의장이나 각상임위원장의 임기도 2년이기때문에 黨職과 국회要職의 전면改編이 불가피하게 따르지않을수 없게되어있다.

따라서 그중요도에 있어서 民正黨의 전당대회는총재를 선출하는 야당의 전당대회에 못지 않은것이고 그때문에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延期論이 관심을 끌고 있는것 같다. 黨憲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내년1월15일에 개최해야한다.

民正黨간부들이 내세우는 연기론의 표면상 이유는 다분히 非政治的이고사무적인것이다. 즉 12월18일 정기국회會期가 끝나면 각종 年末年始행사로 바쁘기때문에 지구당개편대회를 치르는등 전당대회에 필요한 예비절차를 法定時限인 1월15일 이전에 끝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酷寒期를 넘기고 농번기를 피해서 3월초쯤이 어떠냐는 氣球를 넌지시 올리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民正黨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겠다는 이유는 이러한 사무적이고 계절적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차원에서 속사정이 있는것으로 관측되고있다.

그리고 이延期論은 최근에 나온게 아니라 이미 수개월전부터 핵심 간부들사이에논의가있었던것이다.

우선 연기론이 나오게된 것은黨職개편을국회要職과 타이밍을맞추라는것이다.

주요 黨職은 모두 대표위원의 제청에 따라 총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청권자인 대표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다른 당직자들도 일괄사표를 내게되는 절차를 밟는다면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는한 당직개편은 1월에 해야한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各常任위원장들은 국회법에 따라 4월11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생기는것이다.

黨職이나 국회요직을 한꺼번에 개편하는것이 편리하다는것은 누가보아도 상식적인 일이고보면 中央執行委의 결의를 거쳐 전당대회를 연기함으로써 당직개편시기를 국회요직개편에 가능한 가깝게 조정하는것은 무리가 될게없다.

만일 국회요직개편을內定」이란는 便法으로 1월의 黨職개편과 동시에한경우 현재의 국회의장이나상임위원장들은「3개월時限附」임기를넘겨야하는不自然스러운현상이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12代총선에 대비한 선거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이다.

만일 黨憲대로 1월에 전당대회를하고 당직을 개편한다면 2년후 총선이있는 85년1월에 다시 體制를바꿔야하고 선거뒤에 또 바꿔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보다는 차라리 내년에들어서는 體制가 아예 85년 총선까지 치르고난뒤에 12代의 새體制를 갖추는것이 편리하다는 구상인것같다. 다시 말하자면 대회연기론의 요체는 내년당직개편으로 들어서는 체제가 85년3월이전에 치르도록되어있는 12代總選을 치르도록 한다는것이다.

선거직전에 體制를 갑작스레 바꾸는것보다는 내년에 들어서는 體制를 중심으로 보완할것이있으면 보완하여 선거를치른다는것.

이러한 必要性에서 제기된 전당대회연기론은 야당가에도 직접간접의 파급효과를 어느정도 미치게될것같다.

더구나 야당은 民正黨과는 달리 내년 전당대회에서 黨權의 향방을 결정하는 총재를 선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미묘한 선적을 띠고 있다.

제1 야당인 民韓黨은 民正黨이 연기한다고 해서『우리가 대회를 연기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애써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당의 전당대회 연기설이 먼저 民韓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점을 감안한다면 각당이 서로 보조를 맞추자는 얘기가 물래 오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종래의 관례로보아 與黨보다는 야당이 훨씬 격렬한 분위기에 휩싸이기때문에 누구하나 먼저 이 문제를 두고 입을 열려고 할수 없는 것이다.

대개는 現役黨權에 도전하는 非黨權과 非主流에서 도전장을 먼저 던짐으로써 시작되는 黨權경쟁이지만 아직은 暗中모색단계인지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가 表面化 되지는 않고있다.

黨權派나 非黨權派가 모두 과거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過熱경쟁을 경계하는듯한분위기가있는것같다.

그러나 내년에 어차피전당대회는 치러야하고 전당대회는 또한 黨權경쟁을불러오게 마련이어서 이제막 피어오르는 民正黨의 연기론과 더불어 정기국회가끝나면서 점차 분위기가 잡힐것으로 보인다.

【黃昭雄기자】

---

◇바웬사의 고뇌 최근 석방된 폴란드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5일 그의 자택벽에 걸린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초상화앞에서서 생각에 잠겨있다. 【그다니스크15일UPI電送=聯合】

**海外토픽**

### 콧속3㎝ 못除去
★英30대주부 30여년만에

30여년간 콧속에 길이3㎝가넘는 못이박혀있는것도 모르고 살아온 한 중년부인이 마침내 의사들의집도로 못제거수술에 성공, 정상적인 호흡기능을 되찾았다고.

英國북부 요크셔지방에 사는 웬디·클랩프부인(39)은 수술후『5년전부터 코가 막혀 호흡장애를 느끼기시작했다』고 말하면서『걸음마 배우던 어린애때 못이 콧속에 박혔던것 같다』고 술회。【런던=UPI】

### 公害먹는 超微生物
★美환경문제硏 실험중

폐수나 폐기물등 유독공해물질을 먹어치우는『초미생물』이 실험배양되고 있다고 미국의 한 환경문제연구팀이 보고。

美환경연구팀은 최근 뉴저지주 오션시티에서 열린 유독공해물질관계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초미생물』이 환경오염문제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수있을 것이라고 전망。

【오션시티(美뉴저지)=AP】

### 性不全치료 새方法
★맥박 박동시켜 正常化

섬선자극호르몬 고나도트로핀이 24시간 계속해서 맥박에 방출되도록 해주면 남성의 생식선이 자극을 받아 발기불능의 남성들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수 있다고 미국의 의사들이 뉴·잉글랜드 의학잡지 최신호에 보고。

이에 관한 연구가 실시된 매사추세츠병원의 대니얼·스프라트박사에 따르면 인공박동기로 발기불능자들의 맥박을 매2시간마다 박동시켜주면 이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을 발휘, 호르몬을 자동적으로 맥박에 주입해 주어 생식선의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다른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것。

【보스턴=UPI】

---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NOV 2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弔旗만 쓸쓸한 大虐殺현장
# 베카溪谷엔 戰雲이…

## 찢기고 허물어진 베이루트
## 廢墟속 시민들 蘇生몸부림

### 安炳璨 駐佛특파원 레바논 가다

【베이루트=安炳璨특파원】레바논정부는 중앙행정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11월부터 비자발급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재외공관의 비자발급은 원칙적으로 본국조회를 전제로하고있다. 베이루트공항이 재개된 10월이래 아랍인 귀국자들과 외국인 사업가들의 발걸음이 차츰 빈번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파리주재 레바논 대사관의 에드몽·다카시 文政官은 『우리 엘리·살렘외상이 미국대사와만나 평화유지군파견문제를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한후 즉석비자를 발급해주었다.

베이루트에 있는 미들이스트 항공보잉720기의 승객은 대부분 귀향하는 아랍인들이었다. 베이루트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지키고있는 군인은 프랑스제철모와 미국제 M16으로 무장한 레바논정부군이다. 터미널이웃에 평화유지군으로온 美해병의 작전본부가 있다. 베이루트 남단에 위치한 공항주변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군을 마주하고있는것이 美해병의 주임무이다.

그동안 보수를하지못한 공항청사는 을씨년스런 얼굴로 7년전쟁의 참화를 알려 준다. 30년전쟁을 치렀던 사이공 탄손누트공항에 들어가던 때와 비슷한인상을 준다.

그러나 베이루트공항의 세관검사대는 이삿짐 보따리를 여러개들고 도착한 귀향인으로 붐볐다. 이번의 평화에 기대를 걸며 소생하고있는 생명력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마침 제마옐대통령의 사우디방문 준비로 공항주변은 보안이철저했다. 귀한객을 마중하러나온 인파들은 청사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친지의 얼굴이 나타나면 환성을 지른다. 번성했던 지중해의교차로답게 베이루트시내에 자동차는많았다. 그러나 한결같이 먼지를뒤집어쓰고 상처를 입은 자동차들이다. 도시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허물어졌으나 그상처가 아물도록 다시소생하고 싶어하는 생명력이뚜렷했다. 공항으로부터 시내중심가를 향해 북상하는 길목에 이탈리아평화유지군이 설치한 난민구호병원텐트가보인다. 적십자旗가 텐트위에 펄럭인다. 이곳부터 학살현장인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일대를 지키는것이 이탈리아평화유지군의 임무이다. 샤틸라난민촌에 있는 집단학살의 구덩이에는 검은弔旗 4개와 레바논국기 한개가 붉은 황토위에 슬픈듯 늘어져 있다. 시체의 악취는 이제가시고 무심한 팔레스타인어린이들이 근처에서 뛰놀고있으며 가난한 과일장수의 손수레가 오가고있다. 아직 베이루트중심가 밤의 환락가는 네온사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서베이루트에서 해변로를따라 동베이루트를 관통한다음 서북쪽교외로 나가는 곳에 휴양지 주니에가 있다. 戰禍를 입지않아 레스토랑 당구장 빙고게임장이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있다. 극장식당 패러다이스에서는 7인조미국쇼단의 소란스러운공연에 이어 아랍부호들의 배꼽춤『부돈』이 정열적으로 무드를 돋운다. 이곳 언론들은 일체의 논평없이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요청을 보도하고 있다. 안리다紙를 비롯한 모든신문들이 한국군파병요청의 진행을 보도했다. 美·프·이탈리아3개국평화유지군은 11월부터 비로소정부군과함께 기독교구역인 東베이루트市순찰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러나 우익민병대의 무장해제나 수색은 하지못하는조건이 붙어있다. 그중에서도 美軍은 특히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美해병들은 무기에 탄약을 장전하지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지난11월1일 美해병텐트옆 자동차에서 시한폭탄(TNT4백㎏)이 터져 송·클리우렌상병이 파편상을 입은 적대행위가 처음 있었다.

지금 관심의 초점은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베이루트·다마스커스고속도로에의 평화유지군확대배치문제이다. 이곳이야말로 시리아軍및PLO 이스라엘軍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베카계곡어구로 가장 위험스런입지지역이기 때문이다. 13일의 티르지역 이스라엘軍사령부폭파사건으로 베카계곡은 일촉의 비상으로 긴장에 휩싸였다. 이스라엘측 F15·16이 베카계곡을 저공으로 날고 시리아군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말없는 美平和유지軍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미군병사한명이 서베이루트市 해변로의 트럭위에서 사방을경계하고있다.

◇安炳璨특파원

# "VTR稅 왜 봐주나"

## 財務委, 稅法심사13人小委구성

국회財務委는 15일하오 정부의 6개稅法개정안에대한 정책질의 종료와 民韓黨이 제출한 2개稅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들은뒤 稅法심사 13人小委를 구성했다.

재무위는 16일부터 본격적인 稅法小委활동에들어가 정부案과 民韓黨개정안및 民正黨이 22일까지계속될 小委활동기간중에 제시할 稅率修正의견을 토대로 소득세 법인세 附價稅 특별소비세등에대한 稅率조정작업에들어간다.

이날 稅法小委구성에 앞서 民韓黨측이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등에 대한 民正黨의수정안제시를 요구하면서 小委구성에 불응하겠다고버텨 한동안 논란을벌였는데 앞으로 小委의 심의과정에서도 民正黨의 수정안제출을 놓고 격론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金鍾基 柳瓊賢 李敏雨 孫泰坤 金在暎 (이상 民韓) 林采洪의원 (國民) 등은 마지막질의에서 ▲대기업의 業務用 부동산에 특별부가세를 면세하는이유 ▲大型유흥음식점이나 운수업 호텔등을 부가세의 特例者로 분류하는이유 ▲紙上배당세폐지 ▲근로소득세 人的공제액의 대폭인상 ▲酒稅法 개정여부등을 물었다.

특히 林采洪의원은 부가세 잠정稅率제도는 VTR등에 대해 2년간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는데 이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것은 金星, 三星, 대한전선등 VTR제조 特定3개社에 혜택을 주기위한발상이 아닌가』고 물었다.

### 稅率인상 取消하라 民韓黨성명

民韓黨稅法심사特委위원장인 高在淸의원은 15일하오 民正黨이 법인세율등을 정부개정안보다 8% 上向조정할 뜻을 밝힌데대해 성명을발표 『예산삭감권은 의회제도의 본질적 권능으로 입법부가 정부案보다 국민부담을 가중케하는 民正黨의 稅法수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한다는것은 부끄러운일』이라고비난했다.

그는『民正黨이 정부와의 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낸다는것은 黨政협의를 유명무실케하는것』이라고지적, 『정부는 집권당의 뒷받침이없는 세법개정안을 즉각철회, 재수정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濠 퀸즈랜드州首相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5일 하오 청와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州의 요하네스·비요케·피터센首相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이자리에는 徐相喆동자부장관과 포코크駐韓오스트레일리아대사가 배석했다.

# 내년 郵便요금 평균 15% 引上

## 崔체신 國會답변

崔順達체신부장관은 15일 국회豫決委제5분과위에서 체신요금인상에관한 답변에서 『내년에 우편요금을 평균15% 인상할방침』이라고 밝히고 『우편요금인상이 都賣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45%에 불과해 물가안정에 큰영향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 李·張부부 懲役15년 宣告

## 李圭光피고는 1년6월에 追徵金1億

### 어음詐欺항소심…林在琇4년, 孔德鍾 執猶

李哲熙·張玲子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선고 형량과같은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李圭光피고인(57)에게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원(1심에서는 징역4년·추징금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는 15일상오10시 형사대법정에서 李·張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李·張부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한화 1억6천2백54만6천7백40원, 미화40만달러, 일화8백만엔의 추징 또는 몰수를 병과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이선고됐던 전 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60), 日新제강회장 朱昌均피고인(61), 共榮土建감사 金東毅피고인(47), 총무이사 邊衡佐피고인(44), 大和산업사장 崔濟振피고인(53), 전朝興은행 영업부장 李斗洙피고인(51), 사채업자 李殷圭피고인(51) 등 7명에게 집행유예1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던 전朝興은행지점장 3명과 日新제강사장 裵吉勳피고인(35) 및 사채업자 趙祥弼피고인(45) 등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전朝興은행장 林在琇피고인(51)에게는 징역4년이, 징역5년이 선고됐던 共榮토건 사장 邊康雨피고인(47)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大和산업 비서실차장 金勇男 피고인(38)에게는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사채업자 黃赫老 徐香連, 金永祜, 金鍾茂피고인등 4명의 보석신청을 허가했으며 共榮토건이 李·張부부를 상대로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 社會漫評

계산 중……

## 社告

# 제23회 한국出版文化賞
# 최고權威의 圖書잔치

한국일보社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綜合圖書 잔치인 한국出版文化賞의 금년도 출품도서를 접수합니다. 올해로 23회의 긴年輪을 쌓은 한국 出版文化賞은 1년동안 우수한 도서를 내놓은 著·編者와 出版人들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는 「良書의 大祭典」 입니다. 특히 우수한 著者 2명에게 시상하는 著作賞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상금이 각각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배증시켜 외로운 學問硏究의 길잡이인 저작자들을 격려하기로했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出版文化로서는 극히 어려운 한해였읍니다. 새해 벽두부터 생겨난 각종의 큼직한 사건들은 독서의욕을 빼앗아갔으며 잇따른 경제불황으로 출판계의 좌절을 압박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속에서도 출판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많은 良書를 간행했읍니다. 출판인들과 著·編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賞의 출품요령과 시상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著者·編者에 賞金 각百萬원씩

### 접수마감 30일까지

◇시상종목=▲著作賞 (우수한 저술을 낸 著者 또는 編者) =2명안팎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각 1백만원 ▲製作賞 (우수한 도서를 낸 출판사나 대학출판부 또는 연구기관) =10개社 안팎에 상패。

◇출품도서=1981년11월1일부터 1982년10월말 사이에 간행된 新刊도서 (全集類는 이 기간중에 完刊된것에 한함)。

◇심사요령 출판사나 著者가 출품한 도서를 한국일보社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접수장소및 마감 11월30일 (火) 하오7시 한국일보社 편집국 문화부 (서울鍾路區中學洞14·우편번호110) ▲연락전화 724151 교환238·239·240

한국일보社

## 地平線

지구궤도를 돌고있는 인공위성 장사가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다. 통신위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미국의 통신위성공사는 지난2·4분기에 작년보다 자그마치 76%나 수익이 늘었다. 작년 2·4분기 흑자가 6백10만달러였던게 올해엔 1천80만달러(81억6천5백만원)로 껑충 뛴 것이다. 『이 불경기에 장사재미가 괜찮다』고 제넘스회장은 자랑하고 있다.

▼지난9월9일 미국 텍사스주 남쪽바닷가 한섬에서는 11m 남짓의 로키트가 하늘로 치솟아 10분40초동안 날은데 성공했다. 미국 우주서비스회사가 항공우주국(나사)으로부터 사들인 모터를 써서 만든 로키트다. 고체연료를 쓰는 이모터는 36만5천 달러, 우리돈으로 2억7천6백만원쯤 된다. 세계에서 장사속으로 처음만든 로키트다.

▼우주서비스회사가 로키트를 쏴 올린뒤 10여개의 민간회사들이 상업용위성발사 흥정을 벌이고있다. 우주서비스회사는 내년께부터 비교적 간단한 자원탐사위성을 하나에 3백만~5백만달러(22억6천8백만~37억8천만원)의 값으로 쏴 올리는 장사를 할 작정이다. 위성의 값은 이중에서 1백만~1백50만 달러 (7억5천6백만~11억3천4백만원)를 차지한다.

▼우주 서비스회사의 계산서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이나 유럽각국이 모여서 만든 아리안위성보다 쏴 올리는 값이 약7분의 1밖에 되지않는 싼 값이다.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에 의하면 이러한 「우주장사」는 미구에 유럽과 일본이 뒤따를것이라고 한다. 유럽공동시장 (EEC) 가맹국들이 많은 아리안계획은 소련도 채 익숙치못한 미국의 액체연료 시스팀을 쓰고있다.

▼우주시장에 뛰어들고있는 나라 가운데에는 또한 인도와 중공이 있다. 인도는 지난 20년동안 6개의 실험위성을 만들었다. 3개는 소련에서 쏴올렸고, 2개는 인도에서, 그리고 작년엔 유럽의 아리안·로키트로 통신위성을 쏴올렸다. 중공도 대형 인공위성을 쏴올린 3단계 로키트를 개발하고있다고 지난7월 밝혔었다.

▼제3세계에서 야심적인 위성계획을 갖고있는 나라로 브라질이 있다. 땅위에서 브레즈네프의 죽음으로 떠들썩한 지금 우리의 머리위에는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가 마지막 비행을 하고있다. 우주전쟁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자, 또한 숨가쁜 우주시장쟁탈전의 신호이기도 하다. 「우주장사」에 뒤질세라 뛰고있는숨가쁜 경주를 구경만 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입장이라하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런던한인회
경로잔치

런던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로잔치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분들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82년 11월 27일(토) 오후5시
장 소 : BAVARIAN TAVERN & RESTAURANT (LONDON ONT.)
연락처 : 회장—배동범 (519)245~2003
총무—이광업 (519)473~5517

주최 : 런던한인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FLORIDA 2BD.RM. BUNGALOW
$ 27,900

NEAR CLEARWATER !!
–20% DOWN
–¼ ACRE LOT INCLUDED
–CENTRAL AIR & HEATING
–MASONRY CONSTRUCTION
–10 MIN. TO BEACH & GOLF
–1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용) BUK S. CHANG, P.ENG(장복섬)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Suite 503 Mississauga ☎ : 629—1242 9:00AM~9:00PM

마크(로고)
현상금공고

★회사명
(株)현영일국제경영콘살턴트
Young I. Hyun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 Inc.
○Human Resourses Management.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Business Valuation.
○Investment project for prospective. immigrants.
○Management consulting for profit oriented enterprises.
※ Logo Letterhead 한글, 영문(단색)
Professionalism, integrity, reputation, and Creaditability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낼곳: 58 Talwood Dr, Don Mills, Ont. M3B 2P5
▲현상금액: 상당액의 사례금 ($500.-)
▲응모마감일자: 82년 11월30일까지.
국제경영 Consultant
공인회계사(C.A.) 현영일

# 弔砲와 함께 열리는 「새和解」

## 各國 弔問사절 지켜보는 가운데 「브」葬禮式엄수

### 브레즈네프가 묻힐 모스크바 붉은廣場

### 10번째… 榮光의 幽宅아닌 피의 자갈밭

### 스탈린은 다른墓로 移葬…「흐」도 못묻혀

브레즈네프가 묻힘으로써 붉은 광장은 10번째 不歸의 客을 맞았다. 15세기末 이반 3세大公이 시장터를 만들기 위해 원래 木造주택과 교회들로된 크렘린성채를 헐어낸 곳이 지금의 붉은 광장.

길이 4백m 폭1백30m의 붉은 광장은 크렘린의 동쪽 성채에 연해있는 자갈밭광장으로 매년11월7일의 볼셰비키혁명기념일과 메이데이에 대규모 군사행진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소비에트연방을 세운 레닌은 붉은광장서쪽에있는 붉은 화강암묘에서 잠들어 있다.

1924년 미이라 처리된 레닌의 유해가 일반에 공개된후 지금껏 이지하묘지를찾은 관광객은 8천만명을넘고 있다.

브레즈네프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묻혔던 인물은 지난1월 사망한 공산주의이론가인 미하일·수슬로프.

스탈린도 1953년 그가 사망했을때 이 지하묘지에 묻혔으나 후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이 한창이던 1961년 크렘린성채 가까이에 있는 다른묘지로 이장됐다.

지난64년 브레즈네프에의해 실각된 후루시초프도 이곳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

지난71년 사망한 후루시초프는 크렘린게서 4·8㎞떨어진 노비데비치묘지에 묻혔다. 일세를 풍미했던 독재자라 한들 모두 이곳에 묻히지는 못했음을 알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붉은광장에 묻히는 것은 死者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영광인 것이다.

붉은광장 다음으로 영예로운 死者의 幽宅은 붉은광장에서 12m쯤 위쪽에있는 크렘린성채. 이곳에는 세계최초의 우주인 유리·가가린, 저명한 소설가인 막심·고르키등 1백여명의 유해가 재로되어 묻혀있다.

크렘린 성채에는 외국인도 묻혀있는데 볼셰비키 혁명사인「세계를 뒤흔든 10일」의 저자인 미국작가 존·리드의 휜대리석묘비명이 그것이다.

섬바실성당으로 더 잘 알려진 포크로브스키교회가 붉은 광장에 세워진것은 1560년 공포의 이반大帝에 의해서였다.

이반大帝는 카잔·타타르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바실성당을 지었다.

1630년대 이곳은 공개 처형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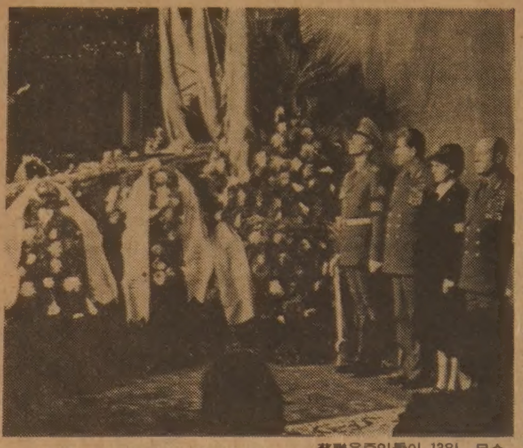
처형자들이 머리를 잘리기 위해 이마를 땅에댔던 곳이어서「이마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17세기에 들어서는 일련의 폭동중심지가 되었으며 1812년 모스크바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때 이곳에서 붉은군대와 백색수비대가 싸웠고 2차세계대전중에는 나치침략자와 맞서 싸우기 위해 전선에 출진하기에 앞서 붉은 군대들이 행진을 하던 곳이기도하다.

붉은 광장, 그곳은 영광의 幽宅이기에 앞서 피의 광장, 혁명의 광장, 공포의 광장이었다.

【모스크바AP聯合=聯合】



◇「브」에의 마지막敬意 ·蘇聯우주인들이 13일 모스크바의 연방회관에 안치된 브레즈네프 前蘇聯 공산당서기장의 유해앞에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있다. 【모스크바13日 AP電送=聯合】

# 美蘇정상회담 가능성

## 부시美副統領 "軍費감축으로 兩國관계 개선"

【모스크바 AP UPI=聯合】 소련을 방문중인 조지·부시 美부통령과 조지·슐츠국무장관은 14일 레이건행정부는 美·蘇 두초강대국들이 軍費지출감축에 합의할 수있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對蘇관계를 구축할 준비를 갖추고 美·蘇정상회담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5일의 소련공산당서기장 故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키위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부시부통령과 슐츠장관은 도착직후 발표한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같이 말했다.

드와이트·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리처드·닉슨 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당시의 소련공산당 서기장 니키타·흐루시초프와 유명한 『부엌논쟁』을 벌인 이래 소련을 방문한 첫美부통령인 부시부통령은 이날 성명을통해 그가 美·蘇간의 적극적 관계를위해 계속 일하려는 미국의 희망을 표시키위해 브레즈네프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고말했다. 부시 부통령은 또그가 이끄는 美조문사절단이 소련지도자들과 소련국민, 그리고 전세계에대해 미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세계긴장을 완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천명키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美·蘇두초강대국들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한 보다 조화된 세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부통령은 이어 미국은 오늘날의 엄청난 軍費지출이 감축되고 특히 빈국들을비롯한 전세계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수있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가스管 禁輸해제

## 레이건演說…宥和 제스처

【워싱턴AP UPI=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13일 소련천연가스관건설에 필요한 미국장비의 對蘇금수조처를 해제하고 이같은 조처로 미국의 對蘇관계개선용의가 소련의 새지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주례 전국라디오방송연설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스관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對蘇금수조처의해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美·蘇관계의 『균형회복』을 위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조처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의 對蘇금수조처 해제발표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유리·안드로포프가 선출된지 불과 며칠만에 나온것으로서 소련의 새지도층에 대한 유화제스처임이 분명하다.

레이건대통령은 對蘇금수조처의 해제를 가능케한 미국과 西歐동맹국들간의 합의에 관해 『이는 西方동맹국들이 근본적으로 단결돼있음을 과시하는 동시 對蘇무역에관한 결정을 내릴때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임을 보여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西方동맹국들이 미국과 西歐동맹국들간의 합의가 소련에 대한 정부지불보증차관제공및 선진기술제공의 제한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 全蘇聯人 5分間 묵념

【모스크바AP UPI=聯合】 故브레즈네프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의 장례식이 15일하오(한국시간)유리·안드로포프신임黨서기장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 세계주요국가들의 조문사절들이 참가한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거행됐다.

관영 타스통신은 브레즈네프의 유해가 이날 하오6시 그동안 안치돼있던 勞組회관에서 발인식을 가진후 하오6시45분 弔砲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붉은 광장」에 안장됐다고 발표했다.

소련인들은 브레즈네프의 장례식때 5분간의 묵념을올렸고 모든 공장과 철도및 선박에서는 조의의 표시로 3분간 종 또는 경적을 울렸다고 타스통신은 밝혔다.

또한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레닌그라드 볼고그라드 오데사 세바스토폴등 소련의 주요도시들에서도 장례식때 弔砲를 발사했다.

### 記者의 눈

### 闘魂

비운을 예감했던 것일까. 『지게 된다면 링에서 내발로 걸어나오지 않겠다』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다. 오로지 세계챔피언이 꿈이었던 金得九는 끝내 雄志를 펴보이지못한채 이역에서 사경을 헤매고있다.

천하의 아르게요가 14회에 비참한 모습으로 캔버스에 쓰러진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라스베이가스의 비극」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있다.

강타자로 소문난 맨시니를 맞아 조금도 두려움없이 한껏 실력을 발휘했던 金得九였기에 뇌수술이 더욱 가슴을 때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회복을 바라고 있건만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이을만큼 절박한 상태에 빠져있다.

金得九의 불행한 링사고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된다.

첫째로 정신력이 미치는 위대한 힘, 둘째는 승부의 세계에서는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金泰式도 링서 뇌를 다쳤고 金得九도 링서 뇌손상을 입었지만 두선수가 팬들에게 남긴 충격의 파장은 상당히 다른것같다.

불사신의 투혼으로 실력이상의 파이팅을보이다가쓰러졌기때문일까. 金得九의 불행은 그 자신과 가족의 불행에 그치지않고 모든 팬들의 불행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세계도전대열에서 수많은 한국선수들이 KO패로 좌절했지만 金得九만큼 화끈한 승부근성을 보여준 복서는 일찌기 없었던것 같다. 비록 맨시니에게 14회에 굴복했어도 정신적으로 그는 영원한 勝者였다.

감상적 기분을 떨쳐 버리고 金得九-맨시니경기를 분석해본다면 金에게는 15라운드를 소화하는 힘(체력·스태미너)이 부족했다. 체력열세는 세계정상을 노크 해온 우리나라 선수들의 공통적 결함이다. 일방적으로 리드하던 崔忠日이 한방을 맞고 리론에 역전KO패 당한 최근 악몽을 되살리지 않더라도 金相賢 朴贊希를 비롯한 간판선수들이 체력열세로 경기막판에 무릎꿇고 말았다. 10회전까지 강한 선수를 15회까지도 강해지도록 만들어내는것이 한국 프로복싱의 당면과제다.

敗戰한다고 도전을 멈출수는 없다. 희생자가 속출해도 高山정복의욕이 근원적으로 꺾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문제는 內實이다.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고 기량을 쌓은후 세계를 노크해야 하겠다.

【金在契체육부장】

### 內外動靜

全斗煥대통령은 15일 벨기에王國 제1백52회 王朝창건일을 맞아 보두엥國王에게 축전을 보냈다.

### 人事異動

企業銀行

▲泰天洞간이예금취급소장 [illegible] (15日字)

### 안테나

**말聯、給水문제 解決 한국 본받을 可能性**

말레이지아난부 조호에서는 급수문제를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본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미·로우·쿤·홍주지사가 7일 말했다.

10人대표단을 이끌고 한국및 일본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로우주지사는 또 州정부가 교통망개선을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들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호레바하루=베르나마】

**카메룬 政權交替모범 비야首相 大統領취임**

아마두·아히조카메룬대통령 (58) 이 6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하야, 폴·비야현수상 (49) 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므로 아프리카국가로서는 보기드물게 평화적 정권교체의 모범을 보였다.

한편 비야新任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행한 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 『아히조 前대통령이 카메룬과 아프리카역사에서 위대한 거인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찬양했다.

【야운데=聯合】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533-2361


## 戰後세계와人物

###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16>

# 파이잘

## 매너·話術뛰어난 협상의 名手

### 國際情勢에 偏狹性없는 洞察力지녀

◇엘리제궁에로 드골을 방문했던 파이잘王. 그는 공산주의와 시오니즘이 근본적으로 연결돼있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아 미국에 애를 먹였다.

64년~75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한 파이잘·이븐·압둘·아지즈·알·사우드王은 古代的인 가치와 習慣에 젖어있는 나라에서 개혁을 시작한 절대군주였다.

그러면서도 파이잘王은 강력한세력의 회교교조주의자들과 맞부딪치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先王들이 한 것처럼 엄격한 회교법을 시행하면서도 사우디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했다.

파이잘은 현대사회의 이점을 받아들이는것을 고무하면서도 이나라의 核心的본질인 회교전통 알라신에대한 헌신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내가 파이잘을 처음 만난것은 60년대초 뉴욕의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였다. 당시 황태자였던 파이잘은 교양있고 보통이 넘은 외교관이란 인상을 나에게 던졌다.

그는 흠없는 영어를 했다. 그당시 예멘과의 남부접경에서 낫세르가 지원하는 반군들과 싸우고있던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었다.

아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수없었던 파이잘의 매너는 그저 평범하면서도 유화적인 것이었다.

74년 내가 대통령으로서 사우디를 방문했을때 파이잘은 王에 앉아있었고 국제정세는 현격히 달라져 있었다. 낫세르시대는갔고 파이잘의 친구인 사다트가 이집트를 통치했고 사우디등 중동산유국들은 서방에 석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만난 파이잘은 섭씨 38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흑백색의 회교전통의상을 두르고 있었다. 태양에 긴칼을 번쩍이는 베도윈경호원들과 왕족들의 수행을 받은 파이잘은 그특유의 매너와 말솜씨로 나를 맞았다.

제다에 있는 그의 검소한 사무실은 내가 처음 만났던 호텔의 우아한 방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회담도중 파이잘은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회담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철저히 이용하려 했다.

파이잘은 능수능란한 현상가였다. 그는 중동회교협제국 몇몇 나라들이 미국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는가하면 산유국들이 최근 발생한 원유가의 폭등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선 외교적인 면을 들어 아무런 확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흑독행사때 그는 나의 행정부내의 적대세력에 대한 간접적이면서도 결점없는 공격을 함으로써 외교의전과 관례를 무시했다.

파이잘과 대화하는동안 나는 그가 대외정책에있어 한가지 눈에 띄는 결점을 발견했다. 파이잘은 공산주의와 시오니즘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불요불굴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의 관점은 아라비아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음모는 시온니즘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원하고있지만 소련의 목표에대해서는 어떠한 착각도 가지지 않고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그의 묘한 아집을 깨우친다는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나는 화제를 미국이 중동의 온건하고 책임을 지키는 정권을 돕기를 희망한다는데로 유도했다.

실제로 그는 중동지역에서 사다트가 소련세력권에서 이탈하는것을 도왔고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에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시온니즘과 공산주의가 연결되어있다는 아집만을 제외하고는 파이잘은 국제정세에관해 매우 균형있고 편협되지 않은 통찰력을가진 인상적인 세계지도자의 한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파이잘은 정연하고 조용하게 말을 했다. 그는 나 또는 자신의 보좌관들과도 얘기를 나눌때 간단한 말을 썼다.

그는 남의 말에 성의를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론 『신은 인간에게 한마디를 말하고 두마디를 들으라고 입하나와 두귀를 주었다』는 말을 좋아했다.

드골처럼 파이잘도 군인정치가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창건자인 삿王이븐·사우드는『나는 3명의 파이잘을 가졌으면 했다』고 파이잘의 운능함을 칭찬했었다. 그는 날때부터 權力에 길들여져 있었다. 14살때 외교적인 임무가 주어졌고 곧이어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됐다.

32년 아버지를 도와 베도윈유목민족이 새로운 국가 사우디王國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븐·사우드王이 죽자 맏아들 사우드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사우드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왕국을 붕괴직전까지 몰고 갔다.

◇닉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도착성명을 발표하기전 파이잘왕과 악수를나누고있다. 닉슨뒤에 당시 수석보좌관 알렉산더·헤이그가 서있다.

58년 [illegible] 파이잘은 국고에 [illegible] 남아 있지않은 것을보고 [illegible] 엄격히 통제하고 궁정예산을 짰다.

64년 사우드王이 왕가에서 축출되자 왕위에 오른 파이잘은 여성에게 교육을 과감히 개방하고 노예제도를 제지하는가하면 도로 학교 병원을 세우는 근대화작업을 시도했다.

파이잘은 엄청난 기름수입금을 미래의 富를 약속하는 산업을 건설하는데 쏟아넣었다.

그는 별로 웃질 않았다. 그가 웃지않자 한측근은 『레먼을 깨물었을때만 속에는 달콤함이있다』는것을 알게될것이라고 파이잘을 평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주름살이 많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눈꺼풀은 두꺼웠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 정력가였다. 그의 젊은보좌관들조차도 일을하다보면 그와함께 몸을 지탱하기가 곤란할정도였다.

이탈리아의 가스페리도 그랬지만 파이잘은 가끔 자정까지도 집무실의 불을 켜놓고 있었다.

파이잘은 바쁜 업무와 검소한 천성때문에 여가를 별로 즐기지못했다. 9백만명의 사우디인과 다른회교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파이잘의 어깨는 한층 무거웠다.

당시 다른중동의 보수아랍국가들은 입법기관을설립하고있었지만 파이잘의 권한은 절대적인것이었다.

그는 왕국각분야에 널리 퍼져있는 수천명의 왕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통치했다.

## 回敎전통지키면서 現代化추진

파이잘은 유능한 보좌관들을 주위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신중히경청, 정책을 수립했다.

사우디인중에는 그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기를 거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면서도 파이잘은 국민가까이에 있었다. 즉위직후 그의 부인은 마더에 있는 새로 장식된 궁전을 보여줬다. 파이잘은 자신의 화려한 침실을 본후『이게 누구의 방이지? 나에겐 너무 커』라고 말하고 대신 침대가 하나만 놓인 조그만 방하나를 택했다.

그는 손에 입맞추며 『각하』라고 부르는것을 싫어했다. 그보다는 그저 『형』 또는『파이잘』이라고 부르는것을 더 좋아했다.

파이잘의 죽음은 극히 아이로니컬한 것이다.

74년 파이잘과 만났을때 그는 나에게 공군소장파들의 [illegible]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적이 있다. 그 장교들은 대개 미국에서 훈련받은 장교들이다. 그들은 이란을 전염시켰던 좌익분자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좌익으로부터가 아니라 우익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파이잘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TV방송을 허가했다. 한 반체제왕자는 이를 반대, 리야드 방송국을 습격했다. 그왕자는 보안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후 10년후 파이잘은 그 반체제왕자의 동생에 의해 암살됐다. 많은 사람들은 형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고 있다. TV방송을 현대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했던 파이잘은 바로 이 TV때문에 생명을 잃은 유일한 지도자 일는지도 모른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비타민 ●Nut 일체 ●중 풍 ●고혈압
●인 삼 ●녹 용 ●심장병 ●부인병
●웅 담 ●사 향 ●간장병 ●양기부족
●산 삼 ●홍 삼 ●비만증 ●위장병
●우황청심환 ●보 약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 美·蘇의 장벽 허물어지는가

## ――시베리아 가스管장비 禁輸해제의 眞意는…

**브레즈네프 以後 <4>**

레이건 대통령이 對蘇파이프·라인기술및 장비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발표가 있은 직후 美행정부 관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번해제조치가 소련의 지도부교체에 때를맞춘 것이 결코아니라고 말했다.

해제조치 발표후 레이건 대통령 자신도 백악관을떠나면서 기자들의질문에 소련의 지도체제 이양이나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석방과는 아무 관련이없다고 말했다.

81년12월30일 미국이 소련의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에 미국회사들의 장비및기술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위파이프라인금수조치는 폴란드의 계엄령 선포등 소련의폴란드억압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것이었다.

이조치는 다시 지난6월 베르사유서방정상회담에서 東西간 무역문제의 원만한합의를 이루지 못한후 미국기술과 제휴해서 같은 파이프·라인 장비를 생산하고있는 영국,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등의 미국계회사에도 확대적용, 소련의 불만은 물론 새로이 유럽우방의 항의를받는등 미국과 西歐각국과의 시비의 초점이 돼왔다.

레이건이 좀처럼 후퇴기미를 보이지 않고 밀고 나갔던 이 파이프·라인금수조치는 물론 소련의 폴란드억압사태에 항의하는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를 석방하며 계엄령을 해제하고 폴란드정부가 자유노조및 가톨릭측과 대화를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13일의 파이프·라인 해제조치는 바웬사의 11월만의 석방보다는 브레즈네프사망과 유리·안드로포프의 후계승계의 중요시점에서 소련측에게 서슴치않고 관계개선의 용의를 밝힌 레이건 대통령에의해 취해졌다는 점에서 행정부내는물론 많은전문가들에 의해 레이건대통령의 對蘇화해 제스처로서 쓸수있는 첫카드를 내보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사실 파이프·라인문제는 소련도 그렇지만 프랑스등이 공개적으로 이 제재조치를 무시, 장비선적을 강행하는등 많은 관련 유럽국가들의 항의를 받아왔으며 심지어 미국의 유럽국가에대한 내정간섭이란 비난을 받아왔던 문제이다.

더구나 레이건이 지난중간선거 직전, 미국의 對蘇곡물금수를 완화하자 형평에 어긋난 일이라고 이 비난은 더욱 고조됐었다.

레이건의 이에관한 설명은 곡물은 금수조치해도 소련이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할수있는 품목이지만 파이프·라인 장비와 기술은 미국회사및西유럽내 미국계 회사로부터만 구입할수 있는것이라고 완화를 반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들은 미국이 西歐와 東西무역문제에 있어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는한 이 금수조치는 완화될것이란 것이었다.

이런 싯점에서 소련의 지도부 교체라는 미국으로서는 드물게 소련에 대해 화해의 시도를 해볼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이것이 레이건으로하여금 당장 수중에 있던 카드를 내놓게 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소련의 파이프라인제재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은 입을수 없지만 현저한 지장은 받을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번 조치가 1차적으로 소련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파이프 라인문제자체가 西歐와 분쟁의 초점이 돼왔다는 점, 10·4%의 실업률속에서 파이프라인 장비의 주수출회사로 돼있는 제너럴·일렉트릭社, 캐터필러社의 해고율은 국내 어느다른회사보다 높았다는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해제조치는 상당히 다목적적인 측면이 없지않다.

## 蘇서 반응없어도 對西歐겨냥한 조치
## 새體制 움직임따라 새軍縮제의 가능

미국이 일련의 화해희망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다목적의 파이프라인 재제 해제를 첫카드로 내놓은것은 미국이 아직 소련 새 지도체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논평하고있다. 그것은 소련을 겨냥한것이 설사 효과를 못본다하더라도 다른 곳을 겨냥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손상은 커버될수있으며 행정부관리가 말하는 이발표와 소련지도부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런상황을 설명해 주는 다목적이다.

지난 10일 브레즈네프사망 이후 미국은 비록 수사학적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최근 수년간 없던 한층음의 화해신호를 보내고있다.

브레즈네프 사망 다음날인 11일 레이건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소관계개선 희망을 피력했고, 13일 對소련·파이프라인해제를 발표하면서는『미국은 어느때라도 관계개선의 준비가 돼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미국의 조문사절로 모스크바에 가있는 부시부통령도『평화를 위한 협의에 응할 태세가 갖추어져있다』고 말했고 슐츠국무장관은 좀더 구체적으로 미·소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있음을 밝혔다. 관계전문가들은 이런 미고위층의 발언과 파이프라인 해제까지를 합쳐 미국이 이 싯점에서 가능한 최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이런 일련의 미국의 의사표시에 소련의 새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올 것인가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모스크바發 기사는 소련의 지도부가 미국의 이런 신호를 관계개선의 가능성으로 보고 검토해 볼 태세가 돼있는 것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관측통의 분석을 인용, 소련관영TV가 미국대통령이 워싱턴의 소련대사관빈소에 조문하는것을 상세하 방영한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있는 중요한 증좌라고 지적했다.

◇蘇대사관서 弔問방명록에 署名하는 레이건

레이건美 대통령이 13일 駐美蘇聯대사관에서 蘇대사 아나톨리·도브리닌이 지켜보는가운데 故 레오니드·브레즈네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의 조문방명록에 서명하고있다. 【워싱턴13日AP聯合】

그러나 이 기사는 소련 지도부내 엘리트간에 이런 일련의 신호뒤에는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기전 미국군비증강에 맞서기 위해 세워졌던 소련의 무기증강계획을 지연시키려는 제스처라고 의심하고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싯점에서 부시부통령과 슐츠국무장관은 후계자 안드로포프와 만날수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미국측 조문사절단이 도착즉시 한말이라든지 레이건이 이들 사절을 보내면서 파이프라인 해제등을 발표한것은 소련지도부와의 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고 부시부통령등 일행은 소련측과의 접촉이 있을경우 그 체류일정의 연장도 고려하고있을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첫 단계가 스무드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레이건대통령은 다음단계로 군축에 관한 새로운 제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미·소관계에서 가장 결정적문제가 되고있는 이군축문제는 레이건의 참모진에의해 그간 새로운제의가 심중히검토되고 있을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레이건대통령 자신도 브레즈네프 사망다음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축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따로갖겠다고 예고한바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

# 레바논 政情 생각보다 複雜

### 金泳燮 前 駐레바논大使에 듣는다

## “한국派兵「左右」반대 없을듯 民兵隊 충돌에 말려선 안돼”

◇레바논의 국내사정은 외부에서생각하는 이상으로 매우복잡하다고 전하는 金泳燮前레바논대사.

『레바논정부가 한국군파견을 요청한것은 한마디로 中東은물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國威와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음을 입증한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역할이 多國籍평화군이란점을 감안할때 軍파견을 경제적 實利추구와 연결시키는것은 잘못입니다. 무작정 實利쪽에 기대를 걸었다가는 오히려 적지않은 실망을 하게될여지가 있지요』

79년5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동안 駐레바논大使를 지냈던 외무부의 金泳燮 본부대사는 15일 레바논은 中東産油國들과는 여러면에서 차잇점이 있다면서 한국군의 中東平和에의 기여와 레바논과의 經協과는 無關하다는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정통한 레바논通이라 할수있는 金대사는『레바논은 국내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복잡하여 질서회복이 쉽지않을뿐만 아니라 언제 무슨일이 터질지 모르는곳』이라면서 그例로 지난11일 발생한 南部항구도시 티레의 이스라엘軍지휘본부 大폭발사건을 들었다.

金대사는 자신이 베이루트에 근무한 지난 3년동안 東西베이루트 境界線에선 하루도 銃擊이 멈출날이 없었다고 레바논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政情을 설명했다.

―銃擊戰은 右派인 기독교민병대와 左派모슬렘민병대간의 싸움인지.

『반드시 그렇지도 않지요. 같은 右派이면서도 제마엘이 이끄는 팔랑헤派와 프란지에가 이끄는 마론派는 敵對감정을 갖고있으며 모슬렘左派끼리도 상호간에 싸움을 벌이고 있읍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레바논민병대끼리의 싸움은 派閥간의 세력다툼이나 다른 파벌에 속한 개인간의 감정대립이 집단적인전투로 확대되는등 뚜렷한명분이 없는 총격전이 非一非再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군이 多國籍평화軍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병될 경우 이들 민병대 집단들이 어떤 눈으로 볼것인지.

『레바논人들은 기독교나 회교도구별없이 레바논의 평화와 政局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지요. 多國籍평화軍이 레바논에 들어가는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것이지 어느 한쪽을 지원하러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없으리라 봅니다』

―혹시 PLO나 시리아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것으로 전망되는지.

『PLO는 특별히 찬성이나 반대의뜻을 갖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한국군이 레바논에 가지않는다고 하여 PLO가 다시 레바논에 들어갈수있는것도 아니기때문이지요. 시리아역시 뚜렷한 반대의사는 갖지 않을것입니다. 시리아는 현재의 다국적平和軍의 레바논 주둔을 반대한적도 없읍니다. 한국이 시리아에 敵對감정을 갖고있는것도 아닌데 시리아가 유독 한국군의 참여만을 반대할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레바논에는 현재 유엔에서 파견한 11개국의 레바논 잠정 駐屯軍(UNIFIL)과 美·佛·이탈리아軍으로 구성된 다국적평화유지군이 있는데 역할의차이는?

『UNIFIL은 78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영토를 점령했을때 유엔 安保理의 결의에따라 이스라엘軍철수를 위해 남부지역에 주둔시킨 군대이고 평화유지군은 베이루트市의 치안을 담당하고있읍니다.

레바논정부가 평화유지군의 증강을 요구하고있는 것은 레바논정부군의 힘이 약하기때문에 平和軍의 도움을받아 여러집단의 민병대를 무장해제하자는 의도로 알고있읍니다』

―UNIFIL은도발을 받았을때 공격이 가능하지만 평화군은 攻擊權이없이 방어임무밖에 없다고 하는데.

『平和軍의경우도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격행위도 무방하다는게 미국의 견해인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방어를위한 공격이어야지 전투를위한 공격행위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만일 레바논에서 대규모전투내지 전쟁이 再發됐을경우 평화군은 어떤행동을 하게되는가.

『레바논에서의 전투는 2가지 類型으로 생각할수 있지요. 이스라엘과 시리아軍의 충돌, 이것은 中東평화 전체를 위협하는것으로 제5차中東戰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이와같이 兩軍이 全面戰을벌일때는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그곳에서 철수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많지요. 그러나 內戰이 再發했을때가 문제인데 平和軍은 내란을 방지하기위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대의 무장해제에 성공하면 질서가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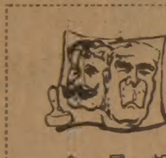
―레바논내에서 평화군에대해 도발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당장 어느쪽이라고는 속단하기 어렵지요. 이해가 상반되는데다 국제정세 추이에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싶습니다. 대체로 모슬렘 左派들은 평화군에대해 그다지 좋지않은 인상을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만일 한국군이 파견된다면 현지의 민병대와 사소한 마찰도 피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읍니다. 민병대간의 분쟁·충돌에 만의하나라도 휘말려 들어가지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李在武기자】

---

## 메아리

# 「人名病」



金昌悅 <編輯委員>

病名중에는 사람 이름을 딴것이 많다. 처음 발견하거나, 보고한 의학자의 이름을 딴 경우이다. 그중에서 비교적 흔히듣는것은 나병을 이르는 한센氏病, 甲狀腺 이상으로 일어나는 바세도우氏病, 중추신경系 장애로 일어나는 파킨슨氏病등등.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겉보기와는달리, 상당한중환자였음은 그가죽은뒤에밝혀진 사실이지만, 그의 持病 역시 사람이름을 딴 애디슨氏病이란 것이었다. 副腎호르몬장애로 일어나는 이병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쿠바의 미사일危機(62년)가 발생했을때 케네디의 병은 상당한 중증이었던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중병을 무릅쓰고 후루시초프와 대결한 케네디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케네디가 더 오래 집권하고, 그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면, 그의 병으로 해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떨쳐내기 어렵다.

국가지도자의 持病은 이처럼 한 나라의 앞날, 국제정치의 흐름을 흔들어 놓을 위험을 지닌다.

실제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병은 2차세계대전 뒤의 冷戰構造를 낳았고 우리나라에 비극을 심었다. 그의 병은 이미 테헤란 會談(1943년) 때 현저했고, 이듬해 얄타會談에서는 회담중 낮잠이 들정도로 심했다. 그런 상태에서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농락을 당했고, 우리나라에 38선이 그어졌다.

루스벨트의 병은 뇌의 血行장애로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이었다. 그 뒤끝의 뇌출혈로, 루스벨트는 얄타會談 2개월 뒤에 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스벨트와 같은 증상에 달리 病名이 붙지않았으나, 지금은 월터·알바레스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바레스氏病이라 부른다. 그가 연구한바에 의하면 그증상은 뇌속의 작은 혈관이 터져 血行장애가 일어나며, 그와함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기억력·사고력이떨어져 낮잠을 자주 잔다. 쉽게 말하면 노망―老人性癡呆다.

이런 상태의 루스벨트를 농락했던 스탈린도 얄타會談에서 돌아 오자 心筋梗塞을 일으켰으며, 그이듬해 포츠담會談에서는 미국의 젊은 새대통령 트루먼에게 밀렸다. 그의 증상 역시 알바레스氏病과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뒤 8년, 스탈린은 心筋梗塞과 脳血栓으로 죽었다.

지난주에 죽은 브레즈네프 死因도 비슷하다. 모스크바의발표는심장마비―心筋梗塞과 합병증으로 추측된다.

국제정치 지도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病者의 支配」(77年)란 책을 낸 프랑스의 의학자 피에르·렌츠니크등은 브레즈네프의 발병은 68년 체코事態때였다고 쓰고 있다. 당시의 두브체크 체코首相과회담중 冠狀動脈血栓症이 발작했으며, 그런 상태에서 체코侵攻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발병 15년만이 된다.

렌츠니크 박사등은 75년에 이르러 브레즈네프에게도 알바레스氏病의 초기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브레즈네프에게는 스토크스·애덤즈氏病이란 또하나의 「人名病」이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 병은 맥박이 떨어지는 심장기능장애로, 어지럼증이 심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다. 증세가 심하면 심장 搏動機를 부착해야 한다. 말하자면, 人工심장인데, 브레즈네프의것은 美製였다는얘기다.

건강이 이런 상태였으므로, 브레즈네프의 死亡說이 자주 나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 3년쯤, 중태에 빠진그의 존재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外信의 추측도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예정됐던죽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안드로포프의 등장도, 뜻밖에 빠르긴 했지만, 예정됐던 대로인지 모른다. 그의 장례도 어제 예정됐던대로 집행됐다.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다. 그것은 브레즈네프의 짙은 눈썹에 빗댄, 다음과 같은 러시안·조크(농담) 그대로다.

―스탈린이 죽고, 브레즈네프가 등장하여 달라진 것은?

―지도자의 콧수염이 눈위로 올라 붙은 것이다.

이제, 안드로포프의 등장으로 콧수염도 짙은 눈썹도 사라졌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까? 아직은, 「占장이」같은 말만 무성할 뿐이다.

---

## 海外토픽

### 新婚여행 母親보내
**★장난감가게新郎 일바빠**

장난감가게주인 팀·테일러씨는 결혼식을 올린뒤 가게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신혼여행갈 짬이 없자 궁리끝에 자기 어머니를 대신·신부와 같이 가게했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채널군도로 5일간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신부 스테파니·테일러(21)는 신랑을 만나『당신은 낭만이라고는 조금도없는 남자』라고 불평. 【브리스톨(英)=聯合】

### 開幕式 코끼리동원
**★印, 性衝動난폭 행동우려**

82년도 인도뉴델리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인 24마리의 코끼리가 오는 19일의 개막식때 각국선수단을 즐겁게하기위해 약 10분간 묘기를 보일예정인데 이코끼리들이 개막식에 성적충동으로 어떤난폭한 행동을 취할까 경기조직위원회가 걱정하고 있다.

인도의 야당인 자나타당의 비렌드라·쿠르마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조직위원회측이 개막식때 코끼리의배설물로 운동장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코끼리에게강제로 약을 먹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이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뉴델리=聯合】

◇미스포토제닉賞의 스위스美女

미스스위스인 로리타·모레나양이 14일 런던의 그로스버너호텔에서 英國사진기자들에 의해 미스포토제닉으로선정, 트로피를 들어보이고있다. 【런던14日AP=聯合】

---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8>

### 안개속의 집 ㉟

수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즐거운 착각에 길들여진 식모애였다. 뭔가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구덕같은 몸뻬바지의 늙은 어린애처럼 작은 여자와의 동류의식같은건 가당치도 않았다.

그 여자를 문전에서 쫓아보내지 않고 부엌까지라도 들인것도 없는 사람끼리의 동류의식때문이 아니라 천박한 호기심과 약간의 자비심때문이었다.

식모애에겐 아직도 유기사에 대한 수지의 특별한 우대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천양지판의 두 사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녀의 손아귀에 든 줄 알고 있던 두사람이 그녀의 손아귀를 벗어나 그녀가 이해할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마주 서있는걸 식모애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밖에 없었다.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 가장 큰 까닭은 그들이 서로에 놀라고 서로를 두려워하는데 있어서 서로 동류하다는 거였다. 더구나 두사람은 지금 똑같이 식모애쪽에 한가닥의 구원의 기대를 걸고있는 것까지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식모애의 상식으로 그들이 서로 동류하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사태는 그녀따위가 도저히 개입할수 없는 거였다.

그녀는 평생 처음 제 분수를 알아차리고 입 다물고 몸츠러 들어 있었다.

이때 부엌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부스럭대는 소리와 꼬꼬댁대는 소리가 함께 났고 그건 그분위기에 매우 안어울리는 생뚱스러운 소리였다.

커다란 양회봉지속에서 죽지와 두다리가 묶인 누우런 토종닭이 고개를 길게 빼고 애처롭게 꼬꼬댁대고있었다. 가스불 위에선 물이 끓고 도마와 식칼이 준비된 것도 보였다.

『참 내 정신 좀 봐, 사모님 들어오시자마자 잡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으면서…』

그 조그만 여자가 웃으면서 속삭였다. 살살이 이마쪽으로 당기는듯한 이상한 웃음이었다. 수지는 어지러워서 벽에 몸을 기댔다.

집 전체가 납작하게 눌려서 얇은 종이장처럼 부피없이 펼쳐져보였다. 수지는 자신의 부피를 확인하려는것처럼 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녀가 양회봉지속에서 명을 재촉하는 닭을 꺼냈다. 집에서 길렀다는 토종닭은 깃털이 꿩처럼 아름다웠다.

애들아, 닭을 보렴, 너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닭을 본적 있니?

수지는 이층에다 대고 아이들에게 소리치려했지만 헛되이 고개만 길게 빼았을뿐 아무말도 되진 않았다. 이층에 아이들이 있기나 있는걸까? 종이장처럼 얇게 펼쳐진 집은 전체적으로 헛되이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도 떨고 있었다.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닭을 도마위에 짓누르고 식칼을 높이 쳐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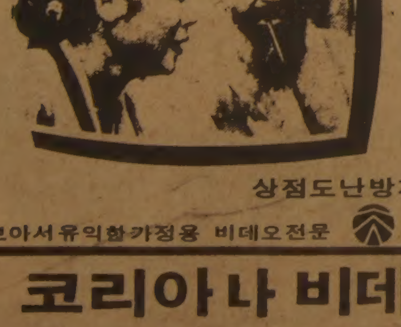
안돼! 수지는 그 여자가 닭의 모가지에 식칼을 내리꽂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그순간 닭을 잡지않고서는 무슨 일을 할수 있단말인가? 자기 역시 닭잡는걸 구경하는것말고 무슨일을 할것인가? 수지는 닭을 잡는것을 보는 일보다 두사람 사이에 아무 것도 할일이 없다는게 더욱 두려웠다. 아아, 닭이라도 잡아야 돼. 수지는 눈을 감았다.

---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 안전을위한 비데오 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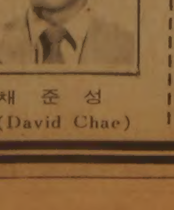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c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를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選手 種目別 마무리訓練

【뉴델리=한국공동신문취재단=聯】한국선수단은 15일 상오9시45분(한국시간하오1시15분) 선수촌광장에서 입촌식을 갖고 오는 19일의 대회개막까지 남은 1백시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선수촌광장에서 인도네시아(9시)에 이어 거행된 한국선수단의 입촌식에는 H·C·카푸르 선수촌장과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인사 金正泰 한국대사부처등 대사관직원들이 참석했다.

선수촌중앙에 자리한 광장에서 베풀어진 입촌식은 녹음된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고 카푸르 선수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카푸르 선수촌장은 환영사에서『한국선수단의 제9회 아시안게임 참가를 인도국민과 대회조직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다음 대회개최국인 한국선수단의 선전과 좋은결과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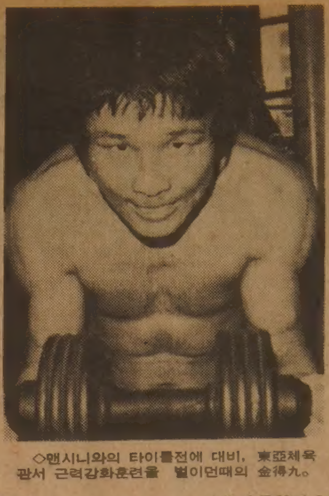
金鍾烈한국선수단 단장은『좋은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준데 감사하며 오는86년의 제10회대회 개최국으로서 이번대회를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본받아 서울 아시안게임을 정성들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촌식이 끝난뒤 선수들은 종목별로 나누어 연습에 들어갔다.

테니스는 이날상오 국방성 교육원특설코트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으며 사이클은 10시30분부터 야무나벨로드롬경륜장서, 궁도는 인도기술교육원에서 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핸드볼·복싱·레슬링·역도등은 선수촌내의 예술회관이나 간이연습장에서, 탁구는 정오부터 1시간동안, 하오3시부터 2시간동안 스포츠홀에서 열띤훈련을 가졌고 남자하키는 하오3시부터 본경기장인 내셔널 스타디움서 인도팀과 연습경기를 가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맨시니와의 타이틀전에 대비, 東亞체육관서 근력강화훈련을 벌이던때의 金得九。

# 사나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 執念에 불탔던 金得九 비장의 日記

金得九는 남다른 선수였다。글쓰기를 특히 좋아했다。라스베이가스로 떠나기전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세계 타이틀에대한 집념과 강훈련을 극복하려는 내면의 몸부림이 생생했다。81년10월17일(토요일)、「최선을 다하여 확고한계획과 실천속에 실력연마와 힘을키워 한단계위의 위치를확보、부와 명예를 얻자」로 시작된 일기는 82년4월8일(목요일)로 단락나고 世宗호텔 강훈때로 이어진다。다음은 최근 남긴 글가운데의 한토막。

하루를 참고 인내하면 열흘을 벌수있고 사흘을참고 견디면 30일을、30일을 견디면 3년을 벌수있다。3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노력하고 극복하면 30년을 벌수 있다。내가 국민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을 잊지못하고 있다。사나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나는 지금도 그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그래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잡초처럼 소리없이 왔다 갈수는 없다。세상에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가야 그것이 사나이가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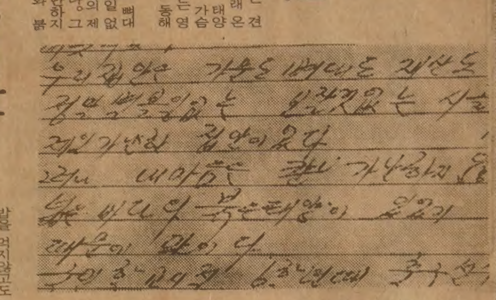
더욱 그런 마음이 굳어지게된것은 내가 자라온 강원도 바닷가에서 였다。새벽에 일어나 흘렸이는 넓고 끝이없는 바다、사나이는 저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한다。그리고 동해의 저끝에서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음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노라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을것이다。그래 온 누리를 비출수 있는 태양이 되리라。어린 내 가슴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영웅심、그것은 내고향 동해에서 비롯 되었다。

### "家門도 재산도 없었지만 내가슴엔 바다와 태양이…"

우리집안은 가문도 뼈대도 재산도 정말 별볼일 없는 보잘것 없는 시골의 제일 가난한 집안이었다。그러나 내마음은 가난하지 않았다。넓은 바다와 붉은 태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6학년때 축구 선수로 발탁이되어 학교대표가되었고 육상선수도 겸하게 되었다。운동이라면 밥을 먹지않고도 할만큼 좋아했다。

그러나 가정형편상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에 가본적이 없다。운동화 한번 신고 공을 차본적도 없었다。운동화 대신 검정고무신에다 새끼줄을 동여매고 축구를 할만큼 나는 운동을 좋아했다。



◇金得九가 라스베이가스로 떠나기전에 남긴 글。가난했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세계챔피언이 될때까지 강훈련을 다짐했다。

## WBA 라이트급級

# 金得九 14회KO敗

## 예상없고 끝까지 잘싸워

【라스베이가스=李洪烈특파원】金得九는 14일 새벽(한국시간) 이곳 시저스팰리스 특설링에서벌어진 WBA라이트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레이·맨시니를 맞아 예상을뒤엎고 초반 우세한경기를벌였으나 14회 시작하자마자 맨시니의 라이트훅을 얼굴에맞고 다운, KO패당했다。

맨시니는 타이틀 2차방어에성공, 25승(20KO) 1패를, 金得九는 17승(8KO) 1무2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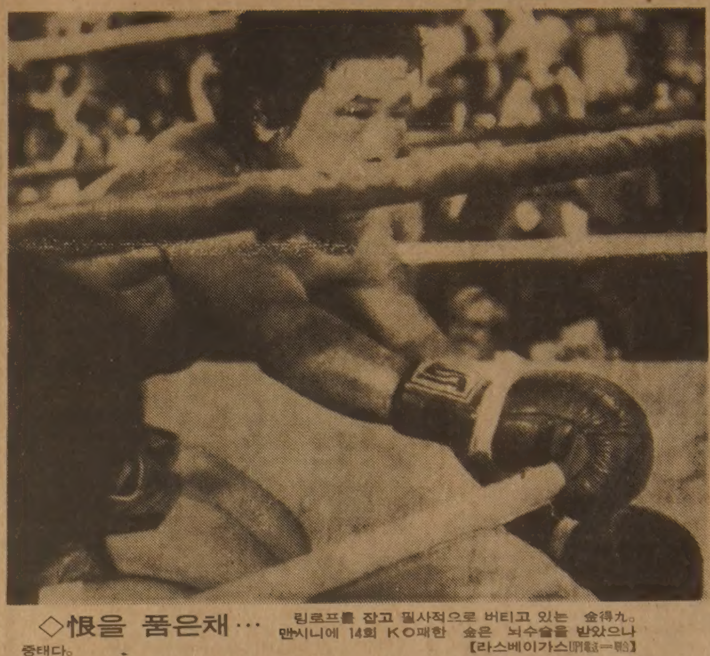
한국복싱은 지난해 金煥珍이 도까시끼에 도전, 실패한뒤 세계타이틀도전에서 8연패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悲運의 복서 金得九

## 體格·파워열세 오직 "鬪志"

## 拳鬪가 곧 삶" 링서 죽겠다"



◇恨을 품은채… 링로프를 잡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金得九。맨시니에 14회 KO패한 金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라스베이가스[illegible]】

비록 세계도전에 실패했지만 그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없다。체격과 파워의 열세를 투지하나로 훌륭히 버티었다。

『지면 살아서 내발로 걸어 나오지 않을것이다。가난은 나의 스승이고 링은 삶의 터전이다。삶의 터전을 잃을바에야 링위에서 죽겠다』맨시니와의 대전이 확정된후 金得九(23)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말을 되뇌었다。

세계도전을 앞둔 프로복서치고 훈련에 게으른 선수는 없겠지만 金得九의 노력은 초인적이었다。국내에서 2백여라운드의 스파링을 가졌고 현지에 가서도 강도 높은 스파링을 소화했다。2개월 반동안의 연습기간중 사우나탕에서 땀으로 체중을 빼지않아도 한계체중을 지킬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훈련에 열심이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결의도 대단했다。결전을 앞두고 호텔방에『괴로움은 순간이나 영광은 영원하다』「맨시니! 너를 죽인다」「사생결단」등 혈서격문을 써붙이고 투지를 불태웠다。

> 지면살아서 내발로 걸어오지않겠다
> 가난은 나의 스승、링은 삶의 터전
> 생의 기반잃을바에야 죽어도한없어

### 무작정上京…78년 프로에

### 獨學으로 高入검정 合格

### 對戰앞두고 스파링만 2백라운드

대부분의 프로복서가 그렇듯 金得九도 가난하게 자라났다。1955년 8월1일 강원도 高城郡巨津邑盤岩里에서 태어났다。집앞으로는 동해바다의 물결이 출렁였고 金의집안도 벼농사 소작과 잡어잡이로 생계를 이어왔다。아버지 金鎬烈씨、어머니 梁善女씨(65세로 동갑)의 4남1녀가 있었고 金은 막내였다。71년 巨津국교를 졸업하고 2년뒤 단신으로 東草로 가출、제과점에 취직했다。첫월급 8백원。국교때 축구와 육상을 좋아했던 金은 8백원으로 프레이닝북 한권과 고입검정고시용 참고서를 샀다。

74년 3월『성공하겠다』는 일념을 안고 무작정 상경했다。일주일동안 청계천 고가다리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책행상·도너츠가게 종업원·구두닦이·껌팔이·철공소 공원등 20여가지 밑바닥직업을 전전했다。75년 3월, 지금은 스승이자 매니저인 金賢治씨의 세계도전실황중계를 보고『복싱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먹고 사는것조차 해결안된 상태에서 복싱을 할수는 없었다。「두드려야 문이 열린다」。기회가왔다。76년 구로공단 협우산업에 취직하여 복싱의꿈을 이룰수 있었다。동향의 공장장은 복싱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다。金은 金賢治씨가 관장으로있는 東亞체육관의 문을 두드렸다。그가 밑바닥생활을 하면서도 엇길로 빠지지않은 것은『복싱을 해서 돈을벌고 독학으로라도 스스로를 수련해야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77년 3월、아마추어로 데뷔、서울시 신인선수권 주니어·웰터급서 4연승(2KO)으로 우승했다。프로복서로는 드물게 독학으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서울시대회 우승이 인연이 되어 千戶商高에 스카웃, 진학의 꿈을 이루었다。

78년 6월 金明福박사배 우승, 그해 10월 학생선수권 제패등 주니어·웰터급을 휩쓴뒤 78년 12월 29승(20KO) 5패의 아마전적을안고 프로로 데뷔했다。12월 78년도 프로복싱신인왕전에 나가 준결승전서 李鍾寶에게 근소차로 판정패했다。맨시니와 대전까지 이패배는 유일한 것이었다。

金이 스타덤에 오른것은 80년。당시 국내 라이트급 5위이던 金은 7월 필리핀에 첫 해외원정에 나서 동양1위 토니·플로레스를 9회 KO로 무너뜨리고 12월6일에는 李弼求를 꺾고 국내 라이트급 챔피언이됐다。

프레시·로메오(필리핀) 오꾸보·가쓰히로(일본)등 강호들을 각각 4회、3회KO로 누이고 승승장구、금년2월에는 예상을 뒤엎고 강호 金光玟을 물리치고동양타이틀을탈취했다。동양챔피언에오르기전의 일이다。

81년7월 金煥珍이 한참 세계도전을 준비하고 있을때 金得九는 세종호텔서 그와함께 생활했다。金煥珍과 金得九가 훈련에만 열중、金賢治관장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술자리를 마련했다는것。그러나 이튿날 金得九는 세종호텔 복귀시간을 놓쳐 金관장으로부터 추방령을 받았다。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으나 金관장은『술한잔 먹고 귀대시간을 어긴 놈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느냐』고 거절했다。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金은 수면제를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사흘뒤 永登浦 시립병원에서 깨어났다。

이후 金得九는 복싱외에 어떤 다른곳에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그간 대전료를모아 6백여만원을 예금해놓기도했다。그는 정신적스승 이었던 金관장과 美林전자 金鍾植사장·선배金煥珍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연습해왔다。【金仁[illegible] 기자】

## 충격받은 맨시니 '당분간 링에 오르지않겠다'

### 회복비는 미사참석 맨시니

◆…맨시니는 金得九의 뇌수술에 큰 충격을받고 앞으로 당분간 링에 오르지않겠다고 말했다。

맨시니는 金선수의 쾌유를 비는 미사에 참석、현역은퇴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 한달간 出戰않겠다 톱·랭크社발표

◆…金得九—맨시니대전을 주최한 톱·랭크社의 봅·애럼프로모터는 계열 프로모션 소속의 선수들을 한달간 링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봅·애럼씨는 이같은 조처는 金得九선수에대한 도덕적 책임을 나타내는 뜻이라며 톱·랭크社소속의 모든선수들역시 金의 쾌유를 빌고 있다고 밝혔다。

### 뇌전문의 초빙수술

○…金得九를 수술한 해머그렘박사는 데저트·스프링스병원 소속이 아닌 뇌전문외과의。데저트·스프링스병원측은 이날 金得九가 병원에 오기전 네바다州에서 가장 유능한 해머그렘씨를 긴급 초빙、집도케 했다。

이날 링사이드에는 네바다복싱 커미션소속의 로널드·로메오씨가 링닥터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로메오씨는 앰뷸런스안에서 응급치료를 담당했다。

### 소생여부 최종검사

◆…해머그렘박사는 15일 상오9시(현지시간) 金에게 혈액순환촬영검사를 실시키로했다。이검사는 허리윗부분에서 목까지 튜브를삽입、이 튜브에 특수약품을주입、혈액순환상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소생여부를 체크하는최종검사가 되는 셈이다。【李洪烈특파원】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9>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 안개속의 집 ㊱

수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천벌이다。아아、천벌이다。

그만큼 그 순간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웠고、거역하거나 피할수도 없는 거였다。

그것은 또 그녀가 일곱살적 마지막 피난의 대열에서 어머니의 참사를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섬뜩하도록 싱싱하고 때묻지않은 채였다。

유기사의 아내가、주기적으로 계집을 패고、버는대로 술이나 퍼마시고 식구를 밥먹이듯이 굶기는 주제에 아이를 다섯씩이나 낳게함으로써 아내를 하루하루 죽여간 무지막지한 사내의 아내가 오죽이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가? 더군다나 그 사내에게 음욕까지 품은 적이 있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가?

안돼。

수지는 감았던 눈을 부릅뜨며 부르짖었다。그러나 그 소리는 그녀의 침 마른 목젖을 고통스럽게 흔든데 지나지 않았다。

안돼。그러나 자신에게 내린 천벌을 거역할 뜻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항의하고싶은 건 천벌에 대해서가 아니라 천벌의 불공평에 대해서였다。아무런 죄없는 오목이를 단 한순간도 꽃 피지못하게 짓누르고 짓밟고、마침내 생명의 마지막 불(火)까지 짜마시고 나서나 떨어져나갈 것같은 괴롭스러운 운명에 대해서였다。

피해자인 오목이가 감수한 엄청나고 긴 고생에 비하면 가해자인 자신을 오랜만에 엄습한 천벌은 차라리 경미했다。그것은 아름답게 손질한 머리를 잡지 화보처럼 헝클어뜨린 미풍이었으며、꽃잎처럼 예쁘며 다듬은 손톱밑에서 피한방울을 짜낸 작은 가시였다。이번에도 그 눈 멀고、무력한 천벌의 촉수를 감쪽같이 피하는 건 문제없는 일이었다。

당신은 어찌 이다지도 불공평하십니까、라고 피 맺힌 원성을 뽑아내는 일은 피해자가 할 일이지 가해자의 일이 아니었다。가해자는 그렇게 심약해서는 안되었다。천벌은 눈 멀었을뿐더러 망령되고 비굴해져서 약한 자만 내해서 먹이로 삼고있었다。

도마위에 꿩처럼 아름다운 토종닭은 조용이 누워있고、오목이가 처든 식칼은 허공에 새파랗게 정지돼 있었다。

안돼。천벌의 불공평은 막을수 없다손치더라도 토종닭의 무고한 희생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초의 생각으로 돌아간 수지가 오목이의 그 짓을 말리려고 덤벼들려는 순간 식칼은 내리 꽂혔다。

오목이 역시 닭을 잡아야할 필요성보다 닭 잡는 일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그 일은 사뭇 절박했다。

닭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푸드덕댔고 몇방울의 선혈이 크림색 부엌바닥으로 튀었다。단말마의 몸부림으로 두리를 묶은 노끈을 푼 닭이 우뚝 섰다。반쯤 잘린 모가지를 처참하게 건들대며。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서 거실로 나왔다。거실의 잿빛 융단위로도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닭은 핏발 선 눈으로 사방을 똑똑히 보았으며 걸음걸이는 확실하고 당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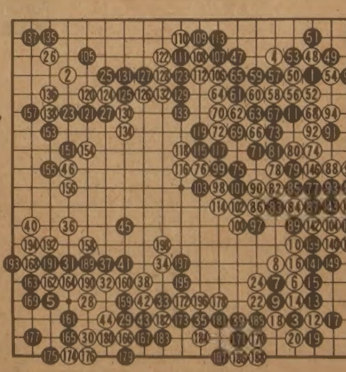
수지는 무서웠다。악몽을 꾸고있는 것같았다。그녀는 떨면서 자신의 목을 두손으로 부둥켜안았다。

오목이도 뜻밖의 사태에 무서워하고 있었다。그녀는 그 사태의 책임을 지고 뒷갈망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하나 까딱할 근력이 없었다。닭한마리 미처 못죽인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소모해 버린 것 처럼。

##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3局總譜 198手完 白不計勝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 相 澈〈1勝〉
黑(7段)河 燦 錫〈1敗〉



### 李4段 서전장식

李4단은 名人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백전의강호 河7단에 쾌승했다。첫판의 승패는 무엇보다 사기면에 영향이 큰법。이바둑에서 기염을 토한 李4단의 차후대전에 기대를 걸어보자。

한편 河7단은 [illegible] 패배를 당했지만 결코 뒤를 꿇지않는 싹싹한 성품인 때문에 잔여 5국에 최선을 다할것으로 믿어보고 싶다。

이바둑은 한말로해서 근자 보기드문 역전의연속、승부야 어쨌든 보는이의 흥을 한껏 돋워주었고 대국자자신도 여운을 되씹을만한 것이었다。

치열한 전투의 발단은 좌하귀 黑29를 순하게 31자리에 두지않은데서 생겼다。黑35까지 하변白세는 파괴되었으나 白36으로써 白이 리드하는 형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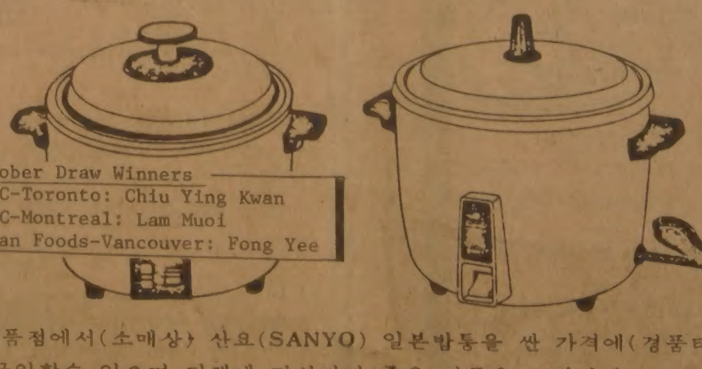
우상귀쪽에 옮아간 전투는 黑63서부터 白無化하여 黑白간 의문수를 교환하면서 혼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白96의 호착과 104의 급소 일격으로 우변白이 위기를 모면했다。그러나 黑139의 시한폭탄을 안은 채 白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는데 黑은 105로 114자리에 따내지 않은탓에 白에게 106이하 126、그리고 138을 당하여 형세가 기우뚱 했다。

그러나 아직도 黑이 유리한 형세인채 마무리짓는가 싶었을때 白158이하의 공방전에서 黑181이 최후의 패착。이로써 白198까지 한번 黑대마가 함몰되고 말았다。21…12, 55…48, 150…144, 152…84。【一凡】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October Draw Winners
JFCC-Toronto: Chiu Ying Kwan
JFCC-Montreal: Lam Muoi
Asian Foods-Vancouver: Fong Y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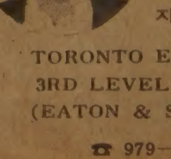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¼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ㅁ16인치 $135
ㅁ18인치 $150
ㅁ20인치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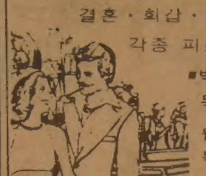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5 GORDON BAKER RD. SCAR.
498-1300, 496-2196
MACHO레스토랑 이 해 창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고등학교 11히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연말·연시 및 각종파티
고급횟감을 마련해 드립니다.
(파티TRAY는 3일전에 예약을 해 주십시오.)

□ 광어
□ 민어
□ 튜나
□ STRIPPED BASS
□ SEA BASS
얼지않은 김장용
ㅁ생 동 태
ㅁ생 새 우
ㅁ물오징어
ROYAL YORK / BLOOR / THE QUEENSWAY
K&R Sea Food
765 THE QUEENSWAY
☎259－1585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 파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럭키 DRAPERY〉
대세일
CUSTOM MADE OR READY MADE
ALL KIND FABRICS
ALL KIND SHEERS & LINES
— 집을 치장하고 싶으시다구요?
— 네. 맞습니다.
○ 치장하시려면 제일 먼저 커텐이 필요하시지요. 커텐은 색상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지요. 자, 아무 염려마시고 1차 왕림하셔 상담도 환영합니다.
○ 럭키 Drapery에서는 다양한 커텐품목을 구비하고 취미에 맞도록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4141 DIXIE RD.
MISSI. ONT. L4W 1V5
625-0698
대표 최 원 보

낙엽이 지고 스산한 가을이 스쳐가고 있읍니다. 못다한 일들이 쌓여지고, 우울과 권태만이 낙엽처럼 뒹구는데 아늑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그라나다"에서 가을을 음미하세요.
산뜻한 왜식과 깔끔한 한식이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따뜻한 "정종"에 "오뎅", "사시미","스시", 덴뿌라, 쓰끼야끼, 생선구이등과 여러가지 한식으로 건강을 돌보세요.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GRANADA
영업시간
오전 8 시~새벽 1 시
토요일 : 12시~새벽 1 시
※일요일은 문닫습니다.
파킹장 오후 8 시 이후 무료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923-3060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Rust Proofing. 37 Primrose Ave. Toronto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랍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한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풀타임 웨이트리스 구함.
아침 6시30분~2시까지
전화 : 251-1908, 466-4578(오후4시 이후)

꽃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트럭 드라이버 구합니다. 우대함.
전화 : 762-1572, 762-98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씨알학교에서 서쪽버스를 운전할 분과 태권도 선생님을 급히 찾읍니다. 겸하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전화 : 960 -0074

그로서리 스토아 캐쉬어 구함.
남·녀 불문. 파트타임.
전화 : 691-3666

일요일만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12시~8시까지
전화 : 921-0624

공장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풀타임.(Markham & Hwy 401)
전화 : 438-0380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7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메니저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83-0134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5세 여아) 전화 : 533-3545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스카브로지역 가게에서 일할
Cashier 또는 Helper 필요하신분
(17세, 19세 여학생임) 전화 : 291-4547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금호실업(박수웅) | 224-1622 |

## 교민단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인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21-9144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몰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전화 : 535-4441 Mr.김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2 Door 팝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겐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현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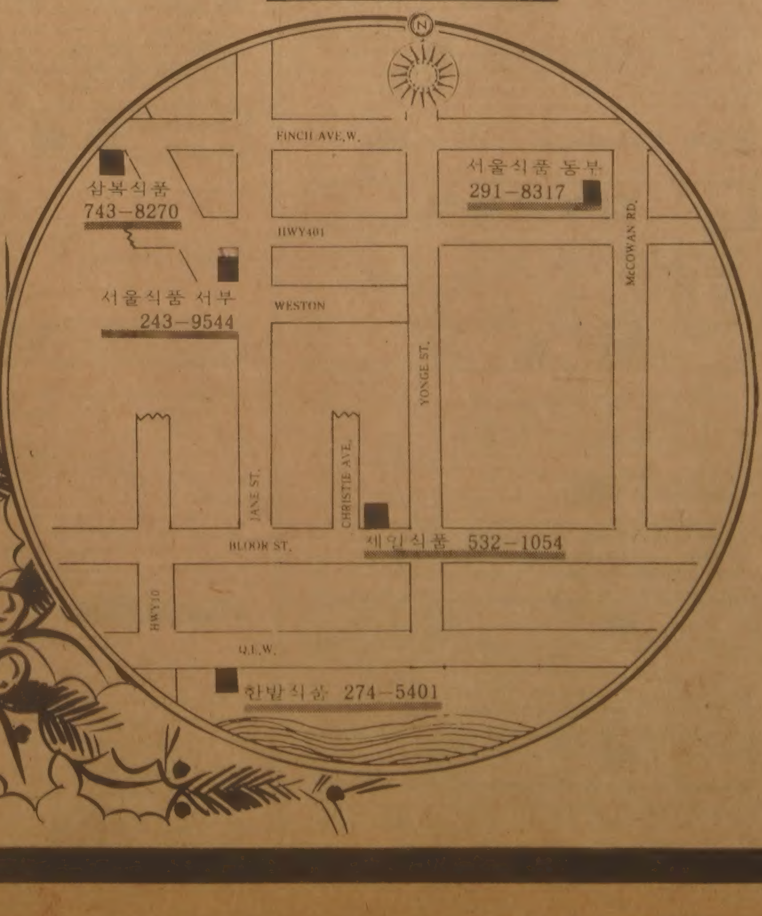
#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는 D.Y 식품을 애용하십시오

＊완전포장된 떡국용 떡

지방에 있는
그리운
친지에게
크리스마스및
새해 선물로
떡국용 떡을
보냅시다.

□냉동 필요없이
보내면됩니다

## 판매처




□김장철 햇 고추가루
D.Y 새우젓및 각종 젓갈류
□D.Y가주미 햇쌀입하(50파운드 정량)
□각종 밑반찬 대량입하

## 캐나다 D·Y 총판대리점

## 622－5379

오기환